



Part 4

마약류 단속 국제협력 동향

- 제1절 유엔의 마약류 관련 기구, 협약 및 활동
- 제2절 국제협력회의 개최
- 제3절 아시아·태평양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창설·운영
- 제4절 한·중 마약대책회의 개최
- 제5절 아세안(ASEAN) 마약퇴치지원 사업 수행
- 제6절 국제 마약퇴치지원 사업(공적개발원조, ODA)
- 제7절 베트남 마약통제역량 강화 사업
- 제8절 방글라데시 마약통제역량 강화 사업
- 제9절 2016년도 마약류 관련 국제회의 참석
- 제10절 국제 공조수사 사례

제1절 유엔의 마약류 관련 기구, 협약 및 활동

1. 유엔의 마약류 관련 기구 및 협의체

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 1997. 11. 유엔 내 마약 및 범죄 관련 업무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수립을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유엔마약통제계획(UNDCP)과 국제범죄예방센터(CICP)를 통합하여 마약통제 및 범죄예방위원회(ODCCP, Office for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를 설립, 2002. 10.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됨
- 국제적 마약퇴치 전략수립 및 각국 마약퇴치 전략수립 지원, 회원국의 마약 관련 협약기준 준수를 위한 입법조치, 기술지원 등 협조 제공, 마약문제에 관한 정보 및 자료수집 · 분석 · 전파, 주요 마약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감독 기능 등을 담당하며, 매년 6월 세계 마약보고서(The World Drug Report)를 발간하고 있음
- 2014. 10. UNODC 사무총장인 Yury Fedotov(러시아, 2010. 7.~)가 방한,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초국가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예방함

나. 마약위원회(CND,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산하에 있는 기능위원회에 속해 있고, 위원회 조직은 유엔 회원국 또는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1961년)' 당사국으로서 경제사회이사회가 선출하는 53개국 대표(임기 4년)로 구성되며, 정기회의는 매년 3월~4월 사무국 소재지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됨
- UNODC에 대한 마약통제 관련 정책지침 제공, 세계마약 수요 · 공급 현황 등 정보 수집 및 자료 분석, 마약통제기금(UNDCP Fund) 및 행정 · 프로그램 예산 승인, 주요 마약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감독 기능 등을 담당함

- 우리나라는 1994. 4. 제37차 회의에서 의장국으로 선임, 2012년~2016년 위원국으로 활동, 2019년까지 위원국으로 활동할 예정임

다.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 근거하여 1968년 설치되었고, 유엔마약협약 이행 감시를 위한 독립된 준사법기관이며, 유엔 회원국 및 유엔 비회원국인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당사국¹⁾이 지명한 후보 중 10명,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명한 전문가 중 3명의 개인자격 위원(임기 5년)을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선출함
-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등 마약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여부 감독 및 촉구,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합법적 이동 통제, 1988년 유엔마약협약에 근거하여 CND에 연례 보고,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등 관련 국제기구와 협조 기능 등을 담당함
- 2000. 9. INCB 사무국장인 Mr. Herbert Schaepe 방한, 2007. 10. INCB 위원인 Mr. Brian Watters 등 3명 방한함

라.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 CND 산하 지역별 마약류 단속책임자 회의로 ① 아·태 지역 ② 유럽 지역 ③ 중동 지역 ④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⑤ 아프리카 지역 회의가 있음
- 아·태 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는 매년 10~11월경 개최되며, 2016년 제40차 회의에서는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Amphetamine Type Stimulants)의 남용 및

1) ‘1961년 마약에 관한단일협약’ 당사국 중 유엔 비회원국으로는 ‘St. Kitts and Nevis (세인트키츠네비스), St. Lucia (세인트루시아),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3국가가 있고, 3국가 모두 북아메리카 카리브해 동부에 위치해 있는 도서국가이다. 『UN 홈페이지 2017. 6. 기준』

신종 향정물질(NPS, New Psychoactive Substances)의 확산 등 마약문제의 당면
안건 등을 논의함

- 특히, 여성이 마약 밀조 및 밀매 등 중범죄보다 마약 남용 또는 지시에 의한 마약운반
등 경범죄에 연루되는 경향이므로 처벌보다 치료·재화의 기회 부여 등 여성 위주의
차별화된 정책에 대해 각 대표단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

2. 유엔 주도 국제협약

가.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및 「1972년 개정 의정서」

-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은 이전까지의 모든 마약 관련 협약을 통합하고 마약관리기구를 일원화하자는 취지로 1961. 3. 체결된 협약이며, 이 협약의 일부조항을 개정한 것이 1972년 개정 의정서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아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및 코카인 등의 천연마약과 메사돈, 페치딘 등 합성마약, 대마 등을 통제함
- 우리나라는 1964. 2.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비준(1964. 12. 발효, 조약 제139호), 1975. 8. 개정 의정서 발효

나.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

- 국제사회는 1971년까지 주로 국제 관례상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는 아편, 대마, 코카인의 통제와 관리에 국한하여 협조하여 왔으나 기타의 향정신성 약물(암페타민계 각성제, 진정·수면제, 환각제 등)의 남용이 성행하자 마약으로 분류된 약물은 물론 기타 향정신성 약물들도 공동으로 규제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1971. 2. 체결된 협약임
- 관리대상 물질은 주로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의약품에 포함되어 있는 향정신성 물질로 각성제, 환각제, 진정제 등이 있음
- 우리나라는 1978. 1. 가입(1978. 4. 발효, 조약 제619호)

다.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 불법수요와 불법거래에서 생기는 막대한 이윤 박탈을 포함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남용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근절,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물질, 화학물질 등의 국제적 이동 감시 등 불법거래 방지를 목표로 1988. 12. 체결된 협약임
- 불법수익 몰수, 범죄인 인도 및 사범공조, 통제배달,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제조에 전용 방지, 해상불법거래 진압, 불법거래에 이용되는 우편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함
- 우리나라는 1988. 12. 가입(1999. 3. 발효, 조약 제1476호)하였고, 이미 1995. 12. 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내법 정비를 완료함

3. 유엔의 마약류 퇴치 프로그램

가. 세계 마약퇴치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 제정

- 1987. 12.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가 매년 6. 26.을 「세계 마약퇴치의 날」로 지정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촉구함
※ 우리나라는 정부 유관기관, 민간단체가 공동 참여하여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 마약류 퇴치 캠페인, 포스터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함
- 2016. 12.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834호, 시행일 2017. 10. 19.)되어 매년 6. 26.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함

나. 마약류 퇴치 10년(UN Decade against Drug Abuse) 선포

- 1990. 2. 유엔에서 마약류 문제에 관한 특별총회를 개최, 1991년~2000년을 ‘마약류 퇴치 10년’으로 선포함

다. 유엔마약퇴치 친선대사(UNDCP Goodwill Ambassadors) 제도

- 1991. 5. 제34차 CND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대사 제도의 창설을 제의함
- 1992. 6. 정트리오(정명화, 정경화, 정명훈)가 초대 대사로 임명되어 1992. 8. 서울에서 대사활동을 시작, 로마, 뉴욕, 파리, 도쿄 등에서 연주회를 개최함
- 멕시코출신 미NBA 농구스타 Eduardo Najera, 일본 축구스타 Nakata Hidetoshi, 브라질출신 미NBA 농구스타 Nene Hilario,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미NBA 농구스타 Vlade Divac, 이란의 축구전설 Khodadad Azizi, 그리고 일본 대중가수 Tetsuya Komuro가 활동하였음

- 미국의 배우이자 변호사인 크리스토퍼 케네디 로포드(Christopher Kennedy Lawford)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마약중독치료와 관리를 위한 UNODC 친선대사(Goodwill for Drug Dependence Treatment and Care)로 활동함
- ※ UNDCP가 CICP와 통합된 후 그 명칭이 UNODC로 변경됨에 따라 UNDCP 친선 대사도 UNODC 친선대사로 변경됨



제2절 국제협력회의 개최

1.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창설 · 운영

-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는 대검찰청 마약과가 국제 마약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국가 간 국제 공조수사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1989년 4월 국내 주재 외국대사관의 마약관계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마약관계관 회의를 개최하면서 시작됨
- 1990년 6월(제1차)부터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여 매년 6월에 개최하던 분기 회의를 외국의 국내주재관 외 본국 마약관계관과 국제기구의 고위급 마약관계관, 국내 유관기관 마약관계관 등이 참석하는 확대회의로 개편함
※ 2002년은 한·일 월드컵과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를 고려하여 개최하지 않음
- 2016년 제26차 확대회의는 2016. 9. 22. ~ 9. 23. 부산에서 아·태 및 유럽 지역 21개국과 UNODC, 인터폴 등 4개 국제기구 마약관계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 이용 마약류 밀거래에 대한 차단 및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신종 향정물질(NPS)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함

[제26차 ADLOMICO]



제3절 아시아·태평양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창설·운영

1. 개 요

- APICC(Asia-Pacific Information & Coordination Center for combating drug crimes)은 대검찰청에 사무국을 두고 회원국 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보공유·대응, 국제 마약퇴치지원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간 국제협력체로서 현재 10개국²⁾이 회원으로 가입함



- ※ 로고 안의 지구 모형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표시함
- ※ 지구 뒤에 있는 문양은 방패이고,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 ※ 방패의 색깔은 APICC 회원국 상호 간에 소속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회원국 국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다섯 가지 색을 삽입함

2) 대한민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 창설 배경

- 초국가범죄(Transnational Crime)인 국제마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 국제공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 20여 년간 대검찰청이 주관하여 개최한 ADLOMICO와 아세안 마약퇴치지원 사업(ASEAN Project)³⁾ 등 국제협력 분야를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전문기구의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함

3. 출범식 및 제1차 정기총회 개최

- 2012. 9. 7. 대검찰청 마약과 APICC 사무국에서 6개 회원국(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주한 외교관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약청 등 국내 유관기관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PICC 출범식을 개최함
- 2012. 9. 11. 부산에서 개최된 제1차 정기총회는 회원국 고위급 마약관계관(필리핀 마약청장, 캄보디아·브루나이 마약청 부청장 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국 간 정보공유를 위한 웹사이트 보안성 향상 방안, 회원국 간 공조수사 방식 표준화 및 실무자 간 워크숍 개최 추진 등을 논의함
- 모든 참가국들이 APICC의 출범을 축하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하였으며, 대한민국 검찰의 선도적인 역할에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함

3) 제5절 아세안(ASEAN) 마약퇴치지원 사업 수행 참조

[APICC 출범식]



[제1차 APICC 정기총회]



4. 제2차 정기총회 개최

- 2014. 9. 30. 부산에서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함
- 대검찰청을 비롯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총 10개국 마약통제기관 고위급 관계관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의 APICC 회원국 가입식을 가졌고, 그 외 APICC 경과보고와 운영 및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함

[제2차 APICC 정기총회]



5. 제3차 정기총회 개최

- 2016. 9. 21. 부산에서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함
- APICC 회원국 10개국과 말레이시아(옵서버) 고위급 마약관계관 23명이 참석하여 APICC의 활동 사항과 APICC 활동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집중 토의함

[제3차 APICC 정기총회]



6. APICC 사무국 파견 근무

- APICC 사무국은 회원국 간 마약류 범죄 정보수집 및 마약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공조 업무를 담당하고, APICC 지원 사업을 수행할 파견 근무자 1명을 매년 회원국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함
- 2012. 8. 태국 마약청 소속 파견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명의 파견관이 APICC 사무국에서 3~5개월간 상주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함
 - 2012 : Mr. APIKIT CH. ROJPRASER, 태국 마약청
 - 2013 : Mr. SHERWIN HERBERT M. MANUEL, 필리핀 마약청
 - 2014 : Mr. KAO BOUMONY, 캄보디아 마약청
 - 2015 : Mr. NGUYEN HOAI LINH, 베트남公安部 경찰총국 마약통제위원회
 - 2016 : Mr. MARK ANTHONY VIRAY, 필리핀 마약청

[회원국 파견관의 업무 장면]



7. APICC 웹사이트 개설 · 운영

- 회원국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형식적인 공조가 아닌 실질적인 공조성과를 거두기 위해 APICC 홈페이지(www.apicc.info)를 개설함
- 마약류 관련 현황 자료, 각국 법령, 공조수사 사례 및 마약퇴치지원 사업과 같은 APICC 활동 사항 등을 게시함
- 2016. 12. 일반 PC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는 최근의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를 추가로 구축함

[APICC 홈페이지 사진]



8. APICC 회원국 마약퇴치지원 사업 수행⁴⁾

가. 메콩강 국경연락사무소(BLO)⁵⁾ 마약통제역량 강화 프로젝트

- APICC 사무국은 2012. 11. 12. ~ 12. 14.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3개국 국경연락 사무소(BLO)에 장비 지원 및 근무자들 대상 워크숍 개최 등 초국가범죄 단속역량 강화 사업을 전개함
- 각국 BLO에 감시용 모터보트, 야간 투시경, 무전기 등 단속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함
- APICC 창설 후 첫 국제지원 사업으로서 회원국들에게 APICC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메콩강 유역 BLO 간 정보교환 활성화 및 협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

[워크숍 및 수사장비 인도식]



4) APICC 사무국은 지원 대상국 마약통제 능력을 고려,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진행 중임

5) Border Liaison Office : 메콩강 유역국가(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들이 국경에서 발생하는 마약밀수 등 초국가범죄에 대처하고자 UNODC의 지원으로 설치한 사무소로 현재 70여 개 운영 중

나. 필리핀 민다나오(Mindanao) 지역 마약청(PDEA⁶⁾) 6개 지부 지원 사업

- APICC 사무국은 2013. 7. 29. ~ 8. 31.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PDEA 6개 지부에 장비를 지원하고, 마약수사관 대상 워크숍을 개최함
- 각 지부별 장비 수요를 파악하여 수사 차량, 모터사이클, 컴퓨터, 무전기, 야간 투시경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여 민다나오 지역 마약단속역량 강화에 기여함
- 위 PDEA 6개 지부 마약수사관 70여 명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통하여 최신 수사기법 및 정보교환의 기회를 부여함

[워크숍 및 수사장비 인도식]



6) Philippine Drug Enforcement Agency

다. 필리핀 비사얀 제도(Visayan Group) PDEA 4개 지부 지원 사업

- APICC 사무국은 2014. 6. 2. ~ 7. 3. 필리핀 비사얀 제도 PDEA 4개 지부에 장비를 지원하고, 현지 마약수사관 교육·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함
- 각 지부별 단속에 필요한 장비 수요를 파악하여 수사 차량, 모터사이클, 컴퓨터, 무전기 등 맞춤형 수사 장비를 지원하였고, 특히 2013. 11.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입은 타클로반 지역 PDEA 지부를 집중 지원함
- 2일간 개최된 워크숍에서 위 PDEA 4개 지부 마약수사관 40여 명을 대상으로 APICC의 국제협력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고, PDEA 교육원 교관, 지방 판사 및 검사 대상으로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최신 수사기법’ 등을 강의함

[워크숍 및 수사장비 인도식]



라. 필리핀 루손(Luzon) 지역 PDEA 7개 지부 지원 사업

- 2015. 7. 20. ~ 8. 14. 필리핀 루손 지역 PDEA 7개 지부에 장비를 지원하여 마약 단속 환경 개선과 마약수사관 대상 워크숍 개최 및 교육·훈련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와 각 지부 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함
- 3년에 걸친 PDEA 17개 모든 지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완수함으로써 실질적인 마약 단속역량 강화 및 양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감

[워크숍 및 수사장비 인도식]



마. 베트남 마약통제역량 강화 지원 사업

- 2015. 11. 9. ~ 11. 20. 제2차 APICC 실무자 워크숍과 병행하여 베트남公安부 마약 통제상임위원회(SODC⁷⁾)에 장비를 지원하여 낙후된 장비 교체를 통한 마약단속역량 강화에 기여함

[워크숍 및 수사장비 인도식]



7) Standing Office Drugs Control of VIETNAM : 베트남公安부 산하 기관으로 마약대책 수립 및 직접 수사 담당

바. 캄보디아 마약청(NACD) 마약통제역량 강화 지원 사업

- 2016. 4. 25. ~ 5. 27. NACD에 장비 지원과 함께 유관기관 마약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단순히 물품지원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검찰의 선진 마약수사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회원국의 실질적인 마약퇴치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사업을 수행함
- 특히, 지원 사업기간 동안 현지에 파견된 사업수행관과 NACD·현지 경찰이 공조하여 캄보디아에 도피 중인 우리 국민 마약사범의 검거 및 신속한 국내 강제송환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조수사와 국제협력의 성과를 거둠

[워크숍 및 수사장비 인도식]



[신병인수 절차 협의]



사. 필리핀 마약청(PDEA) 마약통제역량 강화 지원 사업

- 2016. 7. 18. ~ 7. 22. PDEA 본부에 장비를 지원하여 마약단속역량 강화를 통하여 마약류 국내유입 사전 차단 등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및 양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함
- 필리핀 정부의 마약범죄 강경 대응 등 정책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핫라인 강화 및 지속적인 공조수사 진행 등 상호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함

[필리핀 마약청장 예방 및 지원 사업 관련 협의]



아. 캄보디아 4개국 마약관계관 국내 초청연수

- APICC 활성화를 위해 국내 초청연수 대상국으로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를 선정, APICC 창설 이후 최초로 4개국 마약관계관 4명에 대한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함
- 2016. 10. 31. ~ 11. 4. 대검찰청 법화학실, 서울지방경찰청, 식약처, 인천공항세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서 마약관계관 4명을 대상으로 기관방문 연수를 실시하여 우리의 선진 마약통제시스템 등을 전수함
- 위 초청연수를 통하여 마약관계관들로 하여금 APICC 조직·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소속감과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회원국들과 공조수사 및 지원 사업 수행 시 더욱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주제 토론 및 유관기관 방문]



9. 국제 공조수사 및 국제협력

- APICC는 회원국 간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공조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국 마약관계관이 APICC 사무국에 근무함으로써 긴밀한 국제 공조수사 체제가 더욱 강화됨
- 아·태 지역에서 APICC 회원국 간 마약에 대한 공동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공유를 통해 한 차원 높은 공조수사가 가능함
 - ※ 구체적 공조수사 사례는 '제4장 제10절 국제 공조수사 사례' 참조

제4절 한·중 마약대책회의 개최

1. 한·중 마약대책회의 창설

- 대검찰청은 1997년 국내 유관기관 실무대책회의에서 한중 간 마약대책회의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은 외무부도 중국 측에 한중 마약대책회의 창설을 제의함
 - ※ 당시, 국내 적발 필로폰의 95% 이상이 중국에서 밀반입이 되는 상황으로 중국 측은 마약 수출국이라는 비난 가능성을 우려하여 양국 간 회의체 창설에 수동적인 자세 견지
- 1998년~2012년 ADLOMICO 및 중국 공안부 방문을 통해 공안부 금독국 대표단 및 금독국장 등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마약대책회의 창설을 위한 업무 협의를 해오던 중 2013. 10.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금독국장과의 양자회담을 통하여 한·중 마약대책회의 창설 및 수사공조 등을 위한 업무합의서를 체결하기로 결정함

2. 제1차 한·중 마약대책회의(2014년)

- 대검찰청 강력부와 중국 공안부 금독국은 2014. 10. 1. 부산에서 제1차 한·중 마약대책회의를 개최함
- 대검찰청 강력부장, 마약과장과 중국 공안부 금독국장 등 약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4명의 마약사범에 대한 검거 및 1명의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중국은 공조수사 시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함
 - ※ 위 회의 앞서 개최된 제24차 ADLOMICO 개회식에서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중국 금독국장이 두 기관 간 업무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

3. 제2차 한·중 마약대책회의(2015년)

- 대검찰청 강력부와 중국公安部 금독국은 2015. 11. 4. ~ 11. 6. 중국 청도에서 제2차 한·중 마약대책회의를 개최함
- 대검찰청 강력부장, 마약과장과 중국公安部 금독국장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은 마약류 범죄 현황 및 공조요청 사건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특히 중국 측은 마약수사관의 상대국 파견 연수 및 지방 수사청 간 직접 교류를 제안함

제5절 아세안(ASEAN) 마약퇴치지원 사업 수행

1. 아세안 프로젝트

- 대검찰청이 아세안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이용하여 회원국의 마약퇴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 라오스를 시작으로 2008년 베트남·캄보디아, 2009년 필리핀, 2010년 인도네시아, 2012년 브루나이·말레이시아·싱가포르, 2013년 미얀마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함

[아세안 프로젝트 지원 지역]



※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협력기구로서, 회원국은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며, 인구는 6억 4,143만 명, GDP는 2조 7,214억 달러(2016년 기준)임

2.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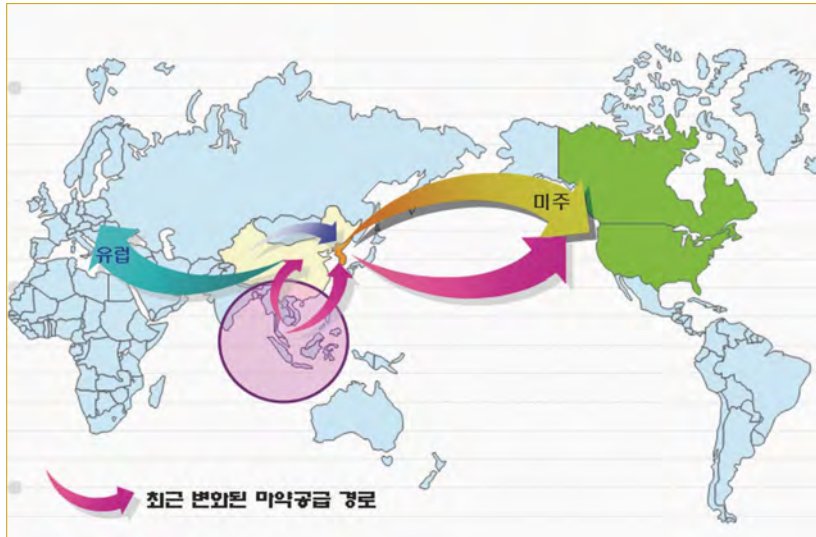
가. 국내 마약류사범 동향 변화

- 종전 마약류사범 퇴치전략의 성공적 수행으로 국내 밀조조직은 거의 궤멸되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되어 왔음
- 그러나, 국제 마약조직이 우리나라를 마약거래의 경유지로 활용하거나 우리 국민을 마약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마약 청정국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
- 위와 같은 마약류사범 동향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 유관기관과 긴밀한 수사공조 체계를 통해 국제 마약조직의 배후를 척결함으로써 국제 마약조직이 우리나라를 마약의 경유지로 이용하는 사례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었음

나. 국제 주종 마약류 및 공급경로 변화

- 주종 마약류 변화 : 아편, 헤로인 ⇨ 필로폰
- 그동안 아편, 헤로인 주요 생산지인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유엔과 각국의 협조 하에 양귀비 재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양귀비 재배를 커피 · 화훼 · 채소 재배 등으로 대체하는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음
- 이에 따라 국제 마약조직은 2003년 이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양귀비 재배를 통한 헤로인을 생산하는 대신 작은 공간에서 화학적 공정을 거쳐 쉽게 제조할 수 있는 필로폰을 대체 마약물질로 생산하여 공급하기 시작하였음
- 또한, 필로폰 주요 생산지인 중국이 필로폰 밀조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자 2004년 이후 중국 내 필로폰 제조책 상당수가 필로폰 단속 역량이 비교적 약한 라오스, 미얀마, 태국 국경 부근,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로 생산 및 공급 근거지를 이동하였음

[최근 마약류 공급경로 변화]



3. 2007년 라오스

가. 추진 경위

- 대검찰청은 2005. 6. SOMTC + 3(ASEAN + 3 Senior Officials Meeting on Transnational Crime, 아세안국가 + 한·중·일 초국가범죄 관련 고위직 회담)에서 ASEAN 사무국으로부터 마약퇴치지원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받음
- 2006. 8. ASEAN + 3, 고위급 마약관계관 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 및 사무국에 한·아세안(ASEAN) 마약퇴치지원 사업 시범운영 방안을 제시하여 회원국의 동의를 받음
- 2007. 1. 지원 대상국으로 라오스를 선정하고 아세안 사무국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2007. 3. 대검찰청 마약과에 한·아세안 마약퇴치지원 사업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함

나. 사업 목적

-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통제기법 전수를 통한 라오스 마약단속역량 강화
-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

다. 추진 실적

1) LOICOG⁸⁾ 개소식 및 수사장비 인도식 개최

- 2007. 4. 25. ~ 4. 26. 라오스 비엔티안(Vientiane)에서 대검찰청 마약과장, 駐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 라오스 마약통제위원회(LCDC⁹⁾) 위원장 및 부위원장, 경찰청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검찰청과 LCDC가 공동으로 마약퇴치 국제협력 연락사무소(LOICOG) 개소식 및 수사장비 인도식(제1차¹⁰⁾)을 개최함

[LOICOG 개소식 및 현지 언론 기사]



[수사장비 인도식 및 현지 언론 기사]



8) 대검찰청에서 현지에 설치한 마약퇴치 국제협력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Golden Triangle Region)

9) 라오스 마약통제위원회(Lao National Commission for Drug Control)

10) 제2차 마약퇴치지원 관련 수사장비 인도(2007. 8. 7.), 제3차 마약퇴치지원 관련 수사장비 인도(2007. 11. 8.)

2) 우리 대표단, 라오스 방문 및 마약퇴치 캠페인 참가

- 우리 대표단(대검찰청 마약과장 등)은 2007. 4. 26.과 10. 23. 2회에 걸쳐 라오스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Luang Prabang) 지역에서 대검찰청과 LCDC가 공동으로 개최한 마약퇴치 캠페인에 참가하여 ‘마약퇴치를 위한 양국 간 협력 증진’을 주제로 강연함

[마약퇴치 캠페인]



3) 라오스 마약관계관 방한 및 제17차 ADLOMICO 참석

- 2007. 6. 9. ~ 6. 17. LCDC 위원장 및 부위원장, 경찰청장 등 고위급 마약관계관 5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아리랑 TV에 출연하여 대한민국 · 라오스 양국의 마약퇴치 국제협력에 대해 홍보함
- 그 외 ADLOMICO 참석, 대검찰청 마약과 방문, 마약감식실 견학, 산업단지 시찰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마약통제기법 등을 체득함

[아리랑 TV 출연]



[대검찰청 방문]



라. LOICOG 파견 근무 검찰 마약수사관, 주요 지역 간 국제회의 참석

- 라오스 국경 지역 간 국제마약회의(Regional Meeting)에 참석하여 마약공급 현황 및 마약통제 정책에 대한 현장정보를 공유함
 - ※ 2007. 7. 17. ~ 7. 20. 라오스 우돔싸이(Oudomxai)에서 개최된 라오스 · 중국 간 마약통제 양자회담에 참석
 - 2007. 7. 25. ~ 7. 27. 라오스 사완나켓(Savanakhet)에서 개최된 라오스 · 태국 간 마약통제 양자회담에 참석
 - 2007. 8. 23. 베트남 하노이(Hanoi)에서 개최된 SOMTC+3 고위급 마약관계관 회의에 참석

[지역 간 국제회의]



4. 2008년 베트남, 캄보디아

4-1. 베트남 마약퇴치지원 사업

가. 사업 목적

-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통제기법 전수를 통한 베트남 마약단속역량 강화
-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

나. 추진 실적

1) 마약통제 지식 공유

- 대검찰청은 2008. 2. 베트남 하노이에 마약퇴치 국제협력 연락사무소(LOICOG)를 설치하여 해당 사무소에 검찰 마약수사관 2명을 파견함
- 2008. 3. 베트남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마약류 관계 법령인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을 소개함

○ 7th ACCORD¹¹⁾ Task Force Meeting 참가

2008. 7. 8. ~ 7. 11. 베트남 호치민(Ho Chi Minh)에서 개최된 ‘7th ACCORD Task Force Meeting’에 LOICOG 파견 근무 검찰 마약수사관이 참석하여 아세안 사무국, UNODC 마약관계관, 아세안 회원국 대표단과 정보를 교류함

[7th ACCORD Task Force Meeting]



11) ACCORD(ASEAN and China Cooperative Operations in Response to Dangerous Drugs) : 2000 년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중국이 마약문제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초국가범죄를 포함한 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설한 지역 간 협력기구

- 2008. 7.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소방방재대학교에서 개최된 마약수사 전술훈련 과정 (DEA 베트남 지부 주관)에 LOICOG 파견 근무 검찰 마약수사관이 참가하여 베트남 경찰, 해경, 국경수비대, 세관 마약관계관들과 정보를 교류함

[마약수사 전술훈련]



- 베트남 마약관계관, 제18차 ADLOMICO 참석
2008. 9. 24. ~ 9. 26. 부산에서 개최된 ADLOMICO에 베트남 경찰총국 부국장, 마약단속국장, 국제협력과장 등 고위급 마약관계관이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마약류 범죄 실태 및 동향, 회원국 간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2) 수사장비 지원

- 마약단속용 SUV 차량 1대, 미니버스 1대와 컴퓨터 28대 등 수사장비 지원

3) 대검찰청 주관, 마약퇴치 캠페인 지속 전개

- 12회에 걸쳐 마약 취약 지역 주민 약 7,500명을 대상으로 캠페인 전개
- 마약 관련 법령, 처벌 기준, 실제 사례 등 홍보 및 우리나라의 마약퇴치 현황 설명
- 홍보책자 배부, 퀴즈 풀이 행사, 마약남용의 폐해를 다룬 공연 등 개최

[마약퇴치 캠페인]



4) 양국 간 우호 증진

- 베트남 경찰총국 방문
2008. 6. 26.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등 3명, 2008. 10. 16. 대검찰청 마약과장 등 2명이 각각 베트남 경찰총국을 방문하여 베트남의 마약단속 현황 및 사법제도에 대하여 견학하고 공조수사 방안을 논의함
- 검찰총장 후원 물품 전달
2008. 6. 27. 베트남 호치민 니쑤안 치료·재활센터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검찰총장의 후원 물품(대형 TV 등)을 전달함

4-2. 캄보디아 마약퇴치지원 사업

가. 사업 목적

-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통제기법 전수를 통한 캄보디아 마약단속역량 강화
-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

나. 추진 실적

1) 마약통제 지식 공유

- 대검찰청은 2008. 2. 18. 캄보디아 프놈펜(Phnom Penh)에 마약퇴치 국제협력 연락사무소 (LOICOG)를 설치하여 해당 사무소에 검찰 마약수사관 2명을 파견함
- 2008. 4. 25.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대검찰청 마약과장, 駐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캄보디아 사무소장,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마약단속위원회(NACD¹²⁾) 사무국장 등 주요 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NACD와 공동으로 현지 사무소 개소식 및 사업 발대식을 개최함
- 캄보디아 · 태국 마약관계관을 위한 훈련과정 개최 등 지원
대검찰청은 2008. 8. 19. ~ 8. 22. 태국 파타야(Pattaya)에서 개최된 캄보디아와 태국 마약관계관 훈련과정을 지원하고, 위 훈련에 검찰 마약수사관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마약통제 정책을 소개함

12) NACD(National Authority for Combating Drugs) : 마약 문제와 관련하여 유관기관을 조정, 지원하는 기구

- 검찰 마약수사관, ASEAN + 3 마약관계관 실무자 회의 참석
 2008. 8. 26. ~ 8. 28.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마약관계관 실무자 회의에 검찰 마약 수사관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ASEAN 회원국의 의견을 청취함
- 캄보디아 마약관계관, 제18차 ADLOMICO 참석
 2008. 9. 24. ~ 9. 26. 부산에서 개최된 ADLOMICO에 NACD 사무국장, 국제협력과장 등 고위급 마약관계관이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마약류 범죄 실태 및 동향, 회원국 간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2) 수사장비 지원

- 대검찰청은 NACD에 마약단속용 SUV 1대, 미니버스 1대와 컴퓨터 11대 등 수사 장비를 지원하고, NACD는 이를 지방 정부 및 치료 재활센터, 학교 등에 배분함

[수사장비 지원]



3) 대검찰청 주관, 마약퇴치 캠페인 지속전개

- 총 7회에 걸쳐 마약 취약 지역 주민 약 16,000명 대상으로 캠페인 전개
- 마약 관련 법령, 처벌 기준, 실제 사례 등 우리나라의 마약퇴치 현황 설명
- 각종 기념품(티셔츠, 모자, 홍보용 CD, 홍보책자 등) 배포

[마약퇴치 캠페인 기념품]



4) 양국 간 우호 증진

- 지역 캠페인 지원

2008. 10. 13. ~ 10. 15. 대검찰청 마약과장 등 3명은 캄보디아 캄퐁참(Kampong Cham¹³⁾) 지역에 출장하여 캠페인 개최를 지원하고, NACD를 방문하여 사업 평가식 및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함

- 마약 및 조직범죄 분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2008. 11. 25. ~ 11. 28.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 NACD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 등 대표단 7명이 방한하여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대검찰청 · NACD 간 마약 및 조직범죄 분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양해각서 체결]



13) 캄퐁참(크메르어 : កំពង់ចាម)은 캄보디아 동부에 위치해 있고,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임

5. 2009년 필리핀

가. 사업 목적

- 필리핀 마약청(PDEA)에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통제기법 전수를 통한 필리핀 마약단속 역량 강화
-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

나. 추진 실적

1) 현지 사무소 개소식 및 수사장비 인도식 개최

- 2009. 4. 22. 필리핀 마닐라(Manila)에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駐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 한인회장, 필리핀 마약청장, 경찰청 차장, 중앙수사국 부국장, 관세청장, 이민국장 등 주요 인사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검찰청과 PDEA가 공동으로 현지 사무소 개소식 및 수사장비 인도식을 개최함

[현지 사무소 개소식 및 수사장비 인도식]



2) 대검찰청 · PDEA,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

- 2009. 4. 23. 필리핀 앙헬레스¹⁴⁾市 홀리엔젤 대학교(Holy Angel University)에서 대검찰청 마약 · 조직범죄부장, 필리핀 마약청장, 앙헬레스 시장, 홀리엔젤 대학교 총장, 경찰서장, 지방검사, 관계 공무원, 학생 및 지역 주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퇴치 캠페인을 공동 개최함
- 위 행사에서 대검찰청 마약 · 조직범죄부장은 ‘마약퇴치를 위한 양국 간 협력증진’을 주제로 연설하였으며, 필리핀 마약청장, 앙헬레스 시장 그리고 홀리엔젤 대학교 총장의 순으로 축사를 낭독함

[마약퇴치 캠페인]



14) 앙헬레스(타갈로그어 : Lungsod ng Angeles)는 필리핀 중부 루손 지방에 속한 주(팜팡가)에 위치한 도시임

3) 필리핀 마약치료 재활센터 내 도서실 개설

- 2009. 4. 22.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필리핀 마약퇴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필리핀 방문 시 마약치료 재활센터 내 도서실 개설 지원 의사를 표명함
- 2009. 5. 필리핀 한인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활센터 내 일부 수용실을 도서실로 개조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2009. 6. 8. 도서실을 개설함
- 약 20평 면적에 500여 권의 도서, 컴퓨터 5대, TV 1대, DVD 플레이어 1대, 에어컨 1대, 책상 2개, 의자 15개, 책상 3개를 각 비치함

[마약치료 재활센터 내 도서실]



4) 대검찰청 주관, PDEA 직원 국내 초청연수

- 마약퇴치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PDEA 소속 마약관계관을 국내로 초청,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통제기법을 전수함
- 2009. 6. 1. ~ 7. 31. 대검찰청 마약감식실에서 마약분석관 2명을 대상으로 성분감식, 생체시료감식(모발·소변), 마약지문감식 등 마약감식기법 교육을 실시함
- 2009. 8. 1. ~ 9. 30.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마약수사관 2명을 대상으로 정보수집·분석, 피의자 미행·체포, 피의자신문, 통제배달 등 수사기법 교육을 실시함

[국내 초청연수]



5) 대검찰청 · PDEA, 필리핀 바기오(Baguio)市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

- 2009. 7. 22. 필리핀 바기오市 시립고등학교에서 PDEA 부청장, 바기오市 부시장, 학교장, PDEA 바기오市 지부장, 검찰 마약수사관, 학생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퇴치 캠페인을 공동 개최하며, 마약퇴치 퍼포먼스를 시연하고 영상물을 상영함

[마약퇴치 캠페인]



6) 대검찰청, 필리핀 마약퇴치 국제협력분야 수상

- 2009. 9. 8. 대검찰청은 PDEA 창설 7주년 기념행사에서 필리핀 정부로부터 마약퇴치 지원 사업이 높이 평가받아 국제협력분야에서 수상자로 선정됨
- ※ 2008년도 국제협력분야 수상자는 미국 마약청, 중국 금독국,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대만 경제문화부로 공동수상 하였으나, 2009년은 대검찰청이 단독 수상함

[마약퇴치 국제협력분야 수상]



7) 필리핀 마약관계관, 제19차 ADLOMICO 참석

- 2009. 9. 16. ~ 9. 18. 부산에서 개최된 ADLOMICO에 필리핀 마약청장 등 고위급 마약관계관 3명이 참석하여 지역 내 마약류 동향 및 국제공조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함
- 위 회의에서 필리핀 마약청장은 ADLOMICO가 명실상부한 국제 회의체로의 발돋움하기를 기대하는 연설을 함

[필리핀 마약청장 ADLOMICO 참가]



8) 대검찰청 · PDEA, 필리핀 나보타스(Navotas)市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

- 2009. 10. 13. 필리핀 나보타스市 시립체육관에서 대검찰청 마약과장, 駐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 한인회장, 필리핀 마약청장, 나보타스 시장, 시민, 학생, 관계 공무원 등 700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약퇴치 캠페인을 공동 개최함
- 위 행사에서 대검찰청 마약과장은 ‘마약퇴치를 위한 양국 간 협력증진’을 주제로 기념사를 하였고, 이어 駐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 필리핀 마약청장, 한인회장, 나보타스 시장 순으로 축사를 하였으며, 그 외 마약류 남용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 시연, 마약류 남용 예방을 주제로 한 동영상 상영함
- 필리핀 마약청장은 대검찰청 마약과장, 駐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 한인회장, 나보타스 시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함

[마약퇴치 캠페인]



9) 대검찰청 · PDEA, 마약퇴치지원 사업 종료식 개최

- 2009. 10. 14. 필리핀 마닐라 PDEA 대강당에서 대검찰청 마약과장, 필리핀 마약청장, UNODC 아·태 지부 법률자문관 등 주요 인사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약퇴치 지원 사업 종료식을 공동 개최함
- 위 행사에서 대검찰청은 마약퇴치지원 사업 성과보고 후 제3회차 지원물품을 인도하고 마약감식실을 개관함

[마약퇴치지원 사업 종료식 및 마약감식실]



6. 2010년 인도네시아

가. 사업 목적

- 인도네시아 마약위원회(NNB, National Narcotics Board)에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 통제기법을 전수하고, 단속장비를 지원하여 인도네시아의 마약단속역량 강화
-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

나. 추진 실적

1) 대검찰청 · NNB,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

- 2010. 5. 22. 필리핀 접경지역인 미앙아스섬(Miangas Island)에서 검찰 마약수사관, 미국 연방수사국(FBI), 마약청(DEA) 관계자, 호주 경찰영사, 필리핀 대표단, NNB 위원장, 미앙아스 지역 경찰 및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약퇴치 캠페인을 공동 개최함
- 위 행사에서 NNB 위원장의 ‘마약퇴치를 위한 양국 간 협력증진’에 관한 축사를 시작으로 마약퇴치 퍼포먼스 시연, 대검찰청 캠페인 기념품 전달식을 실시하고, 주요 행사내용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TV를 통해 생중계됨

[마약퇴치 캠페인]



2) 대검찰청 주관, 인도네시아 마약관계관 국내 초청연수

- 마약퇴치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NNB 소속 마약관계관을 국내로 초청,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통제기법을 전수함
- 2010. 5. 10. ~ 7. 9. 대검찰청 마약감식실에서 마약감식관 2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성분감식, 생체시료감식(소변·모발), 마약지문감식 등 마약감식기법 교육을 실시함
- 2010. 7. 12. ~ 9. 11.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에서 디지털 증거분석관 2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료의 수집·복구·분석 등 디지털 증거분석기법 교육을 실시함
- 2010. 5. 10. ~ 9. 11. 과 2010. 7. 12. ~ 9. 11. 2회에 걸쳐 서울중앙지검 및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마약수사관 4명을 대상으로 정보수집·분석, 피의자 미행·체포, 피의자 신문 등 마약수사기법 교육 및 공항만 마약검색시스템 견학 등을 실시함

[국내 초청연수]



3) 대검찰청 · NNB, 사업 발대식 및 현지 사무소 개소식 개최

- 2010. 6. 2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Jakarta)에서 대검찰청 강력부장 및 마약과장, 駐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NNB 위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마약퇴치 지원 사업 발대식을 공동 개최함
- 위 행사에서 대검찰청 강력부장, 駐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NNB 위원장의 축사와 사업경과 보고, 첨단 마약감식 장비 지원, 현지 연락사무소 현판식 등을 거행함

[사업 발대식 및 현지 사무소 개소식]



4)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 캠페인 참가

- 2010. 6. 2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메르데카 광장(Merdeka Square)¹⁵⁾에서 인도네시아 부통령이 주관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기념 캠페인에 대검찰청 강력부장 및 마약과장 등이 참가하여 NNB 측에 기념 티셔츠 등 지원물품을 전달함

[캠페인 참가]



15) 자카르타에 있는 독립광장으로 광장 중앙에 모나스국립기념탑이 있어 모나스 광장이라고도 함

5) 대검찰청 주관, 한·아세안 마약통제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2010. 6. 28. ~ 6. 29.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인도네시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아세안 회원국 마약관계관 및 UNODC 아·태 지부 관계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한·아세안 마약통제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국제 워크숍을 주관한 사례임
- 위 행사에서 우리나라 및 아세안의 마약통제시스템 소개, 한·아세안 마약퇴치지원 사업 평가, APICC 신설 추진 계획 소개, 회원국의 의견 및 신설을 위한 MOU 체결에 관한 일정 등을 논의함

[한·아세안 마약통제역량 강화 워크숍]



6) 대검찰청·NNB, 마약퇴치지원 사업 종료식 개최

- 2010. 11. 9. 인도네시아 발리 NNB 강당에서 대검찰청 마약과장, 駐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NNB 위원장 및 마약관계관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퇴치지원 사업 종료식을 공동 개최함
- 위 행사에서 대검찰청은 마약퇴치지원 사업 성과보고 및 마약감식 장비 등 지원물품을 인도하고, NNB는 향후 마약류사범 정보전산화 지원사업을 기대함

7. 2012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가. 사업 목적

- 아세안 3개국(브루나이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마약통제기관에 대한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통제기법 전수를 통해 마약단속역량 강화
-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

나. 추진 실적

1) 아세안 3개국 순회 마약통제기법 공유 워크숍 개최

- 대검찰청은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 출장단(7명)을 구성하여 2012. 4. 2.~4. 9.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3개국을 순회하며 각국 마약단속기관(NCB, RMP, CNB)¹⁶⁾ 관계자들과 ‘선진 마약통제시스템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공동 개최함
- 위 행사에서 우리 대표단(대검찰청 마약과장 등)과 위 아세안 3개국 관계자들은 자국의 마약통제시스템, 마약 감식시스템, 공항 · 항만 검색시스템, 마약류 예방 · 재활 시스템을 소개하고 토의 등을 통하여 정보 교류함

16) NCB(Narcotics Control Bureau, 브루나이 마약청으로 대내적 명칭은 BKN 사용), RMP(Royal Malaysia Police, 말레이시아 왕립경찰청), CNB(Centre Narcotics Bureau, 싱가포르 마약청)

[한 · 싱가포르 워크숍]



[한 · 말레이시아 워크숍]



[한 · 브루나이 워크숍 및 언론 기사]



2) 아세안 3개국 마약관계관 국내 초청연수

- 대검찰청은 2012. 7. 1. ~ 7. 7. NCB, RMP, CNB 소속 마약관계관 총 6명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통제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위 마약관계관들은 대검찰청, 인천국제공항세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을 견학하며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통제기법을 습득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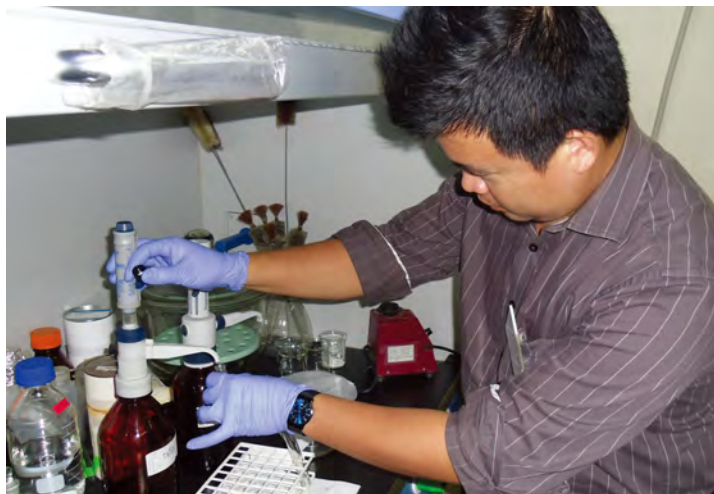
[각 기관 견학 방문]



3) 아세안 3개국 마약감식관 국내 초청연수

- 대검찰청은 2012. 7. 1. ~ 7. 21. NCB, RMP, CNB 소속 마약감식관 총 3명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검찰의 선진 마약감식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위 기간 동안 대검찰청 마약감식실 및 부산고검 마약감식팀에서 3개국 마약감식관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성분감식, 마약류 지문감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술을 공유함

[마약감식기술 전수]



4) 아세안 3개국 세관실무자 국내 초청연수

- 대검찰청은 2012. 8. 26. ~ 9. 1. NCB, RMP, CNB 소속 세관실무자 총 3명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세관의 선진 마약검색시스템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함
- 위 기간 동안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및 세관탐지견훈련센터, 인천국제공항세관 등에서 3개국 세관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정보 수집기법, 여행자 동태관찰 및 인터뷰기법, 세관 과학검색장비 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국의 세관검색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

[세관실무자 국내 초청 교육]



8. 2013년~2014년 미얀마

가. 사업 배경

- 미얀마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으로 2000년 이후 유엔의 대체작물 지원정책으로 양귀비 재배면적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적인 양귀비 생산국임
- 아울러, 국제 마약조직은 비교적 단속역량이 약한 미얀마, 라오스, 태국 국경 부근 지역에서 아편재배를 통한 헤로인 생산 대신 화학적 공정을 거쳐 쉽게 제조할 수 있는 암페타민류 각성제(ATS)를 대체 마약물질로 대량 생산하고 있는 추세임
- 대검찰청은 세계적인 양귀비 재배국으로서 최근 ATS의 생산, 수요 및 수출 증가로 마약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하여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나, 열악한 재정과 마약단속 인력 및 장비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마약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미얀마를 지원 대상국으로 선정함
- 위 사업을 통하여 미얀마가 APICC에 가입함으로써 향후 마약퇴치를 위한 지역 간 공동체 구축에 일조하도록 함

나. 사업 내용

1) 사업수행관 파견 및 사업명칭 확정

- 대검찰청은 2013. 11. 18. ~ 2014. 7. 18. 미얀마 네피도(Naypyidaw¹⁷⁾) 경찰청에 검찰 마약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수행함

[사업로고]



[사업 명칭]

Enhancing the Capacity of Drug Control in Myanmar
(약칭: ECODC PROJECT)

17) 미얀마의 행정 수도로 2005. 11. 6. 양곤에서 이전됨

2) 대검찰청 · 미얀마 마약통제위원회(CCDAC)¹⁸⁾, 사업 착수식 및 한 · 미얀마 마약통제 워크숍 개최

- 2014. 4. 2. 미얀마 네피도에서 대검찰청 마약과장, 미얀마 경찰청장, CCDAC 사무국장 등 주요 인사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업 착수식 및 한·미얀마 마약통제 워크숍¹⁹⁾을 공동 개최함
- 위 행사에서 우리나라의 마약동향 및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마약원료물질 관리 정책 및 APICC에 대해 소개함

[사업 착수식]



18) CCDAC(Central Committee for Drug Abuse Control, 마약통제중앙위원회) : 1975년에 미얀마의 마약 정책수립과 국제공조 등의 목적으로 설립, 위원장은 내무부장관이며 경찰청 부청장급이 사무국장 업무 담당

19)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통제기법 전수를 위해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단장으로 마약통제 유관기관(식약처,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용인정신병원)이 참여한 대표단 구성

[한-미얀마 워크숍]



3) 대검찰청 · (CCDAC),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

- 2014. 1.~6.까지 총 6회에 걸쳐 미얀마 6개 지역(양곤관구, 사가잉관구, 만달레이관구, 핀마나 · 만달레이, 산주 타웅지, 카친주 미치나²⁰⁾)에서 검찰 마약수사관, 미얀마 마약관계관, 각 지역 공무원과 학생, 주민 등 2,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약류퇴치 캠페인을 공동 개최함
- 균형 있는 지역 선정으로 마약의 폐해에 대한 국민 의식을 고취시키는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

20) 미얀만의 행정 구역은 양곤(Yangon), 만달레이(Mandalay) 등 7개의 관구(tyne)와 산(Shan), 카친(Kachin) 등 7개의 주(pyi-ne)로 나누어져 있고, 관구와 주는 다시 군(kayaing)으로 나누어져 있음

[마약퇴치 캠페인]



4) 대검찰청 주관, 미얀마 마약감식관 및 마약관계관 국내 초청연수

- 2014. 4. 30. ~ 5. 29. 대검찰청 법화학실에서 미얀마 마약감식관 2명을 대상으로 집중 연수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감식기법을 전수함
- 2014. 5. 19. ~ 5. 29. 대검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미얀마 마약관계관 4명을 대상으로 기관방문 연수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통제기법을 전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함

[국내 초청연수]



5) 대검찰청 · CCDAC, 마약퇴치지원 사업 종료식 개최

- 2014. 7. 7. 미얀마 양곤지방경찰청 내 마약감식실 및 마약박물관 강당에서 대검찰청 마약과장, 양곤지방경찰청장 등 마약관계자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약퇴치지원 사업 종료식을 공동 개최함
- 대검찰청은 CCDAC 산하 마약분석기관에 마약감식장비를 기증하고,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감식기법 전수를 위한 마약감식 전문가 출장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지 실정에 맞는 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마약통제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함
- 미얀마 측은 실질적인 미얀마 마약통제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우리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명²¹⁾ 하였고, 향후 양국 간 공조 및 협력체제 구축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함

[마약퇴치지원 사업 종료식]



[마약감식지원 장비 및 마약감식전문가 출장 교육]



21) 미얀마 정부는 동 사업 책임자인 대검찰청 마약과장과 현지 사업수행관 2명에 대해 국가 훈장을 수여하였음

6) 미얀마 마약관계관, 제2차 APICC 정기총회 및 제24차 ADLOMICO 참석

- 2014. 9. 29. ~ 10. 3. 개최된 APICC 정기총회 및 ADLOMICO에 CCDAC 사무국장, 국제협력과장 등 고위급 마약관계관 3명이 참석하여 각국의 마약류 범죄 실태 및 동향 공유, 수사공조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함
- 우리나라 검찰 주도하에 창설한 APICC 회원국 가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던 미얀마 정부는 위 사업을 계기로 회원국 가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고, 제2차 APICC 정기총회에서 MOU 서명을 통해 1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

[미얀마 APICC 회원가입 MOU 체결식]



[제24차 ADLOMICO]



9. 메콩강 유역 국경연락사무소(BLO) 단속역량 강화 사업

가. 사업 배경

- 2012년 대검찰청이 APICCC를 통해 메콩강 유역 3개국(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BLO에 대한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우리 외교부에서 위와 같은 성공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검찰청에 한·메콩 협력기금²²⁾을 활용한 BLO 지원 사업을 제안함
- 2015. 7. 외교부를 경유하여 메콩연구소에 ‘메콩강 유역 5개국 BLO 단속역량 강화 사업’ 제안서 제출, 2016. 7. 메콩연구소 및 메콩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이 본 사업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함
- ‘메콩강 유역 개발협력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시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메콩강 유역 국가의 마약통제 역량을 향상시켜 위 지역으로부터 국내로의 마약류 유입 차단과 국제마약퇴치에 동참함으로써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한
 - ※ 2011. 10.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에서 ‘상호번영을 위한 한·메콩 간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한강선언’ 발표

[메콩강 유역]



22)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메콩연구소(1995년 메콩강 유역 5개국이 설립, 태국 컨센시 소재)에 기금을 출연, 2016년 말 현재 100만불 규모임

※ 메콩강(Mekong River) : 중국 티베트에서 발원하여 미얀마 · 라오스 · 태국 · 캄보디아 ·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흐르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강으로 길이는 4,020km, 유역면적 80만km²에 달함

나. 사업 내용

1) 사전 협의 워크숍 개최 및 사업수행관 파견

- 2016. 8. 9. 태국 마약청(ONCB)에서 대검찰청 관계자 3명, 메콩강 유역 5개국 대표 각 2명, UNODC 아 · 태 지부 담당자 2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본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참가자들과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 BLO 선정, 사업진행 방향과 착수 시기 등을 조율함
- 2016. 10. 10. ~ 2017. 3. 17. 메콩강 유역 BLO 현지에 검찰 마약수사관 1명을 파견하여 BLO 근무자 직무교육및워크숍 실시, 국내 초청연수생 선발, 스피드보트 · 모터사이클 등 수사장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사전 협의 워크숍]



2) 제1차 워크숍 및 수사장비 전달식 개최

- 2016. 11. 29. ~ 30. 태국 치앙라이(Chiang Rai)주 치앙센(Chiang Sean) BLO에서 우리 대표단 3명(검찰·세관·해경), 미얀마 경찰청 BLO 총괄책임자, 태국 마약청 치앙센 지부장, 라오스 푼푸엥 경찰서장, 라오스·미얀마·태국 BLO 근무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BLO 근무자의 마약 등 초국가범죄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및 오토바이, 무전기 등 수사장비 전달식을 개최함
- 위 행사에서 BLO 근무자들은 대검찰청·세관·해경의 강의를 통해 국제 마약현황 및 마약 등 초국가범죄 수사기법 등을 습득하고, 3개국 BLO 간 긴밀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함

[수사장비 전달식 및 워크숍 개최]



제6절 국제 마약퇴치지원 사업(공적개발원조, ODA)

1. ODA²³⁾

- 대검찰청은 2007년부터 아세안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수행²⁴⁾ 해왔고, 각 사업 당사국인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이 대검찰청의 지원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사업 재개를 요청하여 2010년부터 법무부 ODA 예산을 활용하여 추가 지원 사업을 시작함
- 2010년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2011년 라오스, 2012년 필리핀, 2013년 방글라데시, 2014년 우즈베키스탄, 2015년 타지키스탄, 2016년 키르기스스탄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각국의 마약통제역량을 제고함(지원 대상지역 확대 :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2. 2010년 캄보디아

가. 사업 배경

- 대검찰청은 2008년도 캄보디아 마약퇴치지원 사업 종료 후, 2008. 11.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캄보디아 마약단속위원회(NACD) 간 마약류 및 조직범죄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약정」 체결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NACD 위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받고 추가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함
- 2010년 법무부로부터 ODA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의 명칭을 ‘2010 NEEDS (New Enhancement to Encounter Drug Spreading)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사업을 수행함

23)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

24) 아세안프로젝트(제4장 제5절) 참조

나. 사업 내용

1) 사업수행관 파견 및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

- 대검찰청은 2010. 5. ~ 11. NACD에 검찰 마약수사관 3명을 순차 파견하여 현지에서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수행함
- 검찰 마약수사관은 2010. 5. 11. 캄보디아 프놈펜 뻠나사 대학교(Pannasastra University)에서 총장, 교직원 및 학생 140여 명을 대상으로 마약의 폐해와 문제점 등에 관한 강연을 실시함
- 2010. 5. 24. ~ 5. 28. UNODC가 주관한 'PATROL'²⁵⁾ 프로그램인 캄보디아 국경지역에서의 조사를 참관함
- 2010. 6. 1. ~ 6. 3. 캄보디아 반테아이메안체이(Banteay Meanchey)주²⁶⁾ 청사에서 개최된 캄보디아 마약 전략회의에 참석하여 NACD 위원장, 주지사, UNODC 관계자 등과 마약단속 역량 강화, 예방정책 및 국제협력 등에 대한 주제별 토론을 하고, 캄보디아 측에 'NEEDS 프로젝트' 활동을 소개하고, 현지방송에도 출연함으로써 대검찰청의 국제협력 사업과 마약퇴치 캠페인 활동의 중요성을 홍보함

[마약 전략회의]



25) PATROL(Partnership Against Transnational crime through Regional Organized Law-enforcement) : UNODC 주도 하에 인도차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국경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인신매매, 야생동물 남획 등 국제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목적으로 함

26) 캄보디아는 25개 주와 4개 지방 자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테아이메안체이는 25개 주 중 하나임

2) 마약퇴치 캠페인 집중 전개

- ‘NEEDS 프로젝트’는 캄보디아 북동부 및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퇴치 캠페인을 전개한 2008년 아세안 프로젝트와 달리 반테아이메안체이주, 푸르사트(Pursat)주 등 북서부와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함
- 2010. 8. 3. ~ 8. 9. 검찰 마약수사관 및 NACD 직원 4명으로 구성된 강사진이 반테아이메안체이주, 바탐방(Battambang)주, 파일린(Pailin)주 지역을 순회하며 마약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및 마약퇴치 국제협력 활동, 양국의 최신 수사기법 등을 소개하고, 마약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대국민 마약퇴치 홍보활동을 전개함

[마약퇴치 캠페인]



3) 대검찰청 주관, 캄보디아 마약관계관 국내 초청연수

- 마약퇴치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NACD 소속 마약관계관을 국내로 초청,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통제기법을 전수함
- 2010. 5. 10. ~ 7. 9.과 7. 12. ~ 9. 11. 2회에 걸쳐 대검찰청 마약감식실에서 마약감식관 4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성분감식, 생체시료감식(소변·모발), 마약지문 감식 등 마약감식기법 교육을 실시함
- 2010. 5. 10. ~ 7. 9.과 2010. 7. 12. ~ 9. 11. 2회에 걸쳐 서울중앙지검 및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마약수사관 4명을 대상으로 정보수집·분석, 피의자 미행·체포, 피의자신문 등 마약수사기법 교육과 공항만 마약검색시스템 견학 등을 실시함

3. 2011년 라오스

가. 사업 배경

- 대검찰청은 라오스 마약통제위원회(LCDC) 위원장이 2007년 수행한 아세안 프로젝트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추가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함
- 2011년 법무부로부터 ODA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의 명칭을 '2011 SDC (Strengthening Drug Control)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사업을 수행함

나. 사업 내용

1) 사업수행관 파견 및 마약퇴치 캠페인 등 개최

- 대검찰청은 2011. 3. 14. ~ 11. 11. LCDC에 검찰 마약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수행함
- 2011. 6. 24. 라오스 비엔티안 탈루앙 광장(That Luang Square)에서 라오스 정부가 주관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 캠페인에 검찰 마약수사관, 라오스 총리실 장관 겸 LCDC 위원장,公安부장관, UNODC 라오스 지부장, 학생 및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가함
- 2011. 9. 13. ~ 10. 4. 검찰 마약수사관 및 LCDC 직원 등 4명으로 구성된 강사진이 볼리캄사이(Bolikhamxai)州, 캄무안(Khammoune)州, 사완나켓(Savannakhet)州, 참빠삭(Champasak)州 지역을 순회하며 마약단속 공무원,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마약퇴치 국제협력 활동을 소개하고, 마약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대국민 마약퇴치 홍보활동을 전개함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검찰 마약수사관,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관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통제기법 전수 워크숍을 개최하여 LCDC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약통제기법, 국제협력 동향, 마약전산시스템, 마약류사범 치료재활시스템을 소개함

[선진 마약통제기법 전수 워크숍]



2) 라오스 마약관계관 국내 초청연수

- 대검찰청은 2011. 10. 26. ~ 11. 3. LCDC 소속 마약관계관 4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통제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위 마약관계관들은 대검찰청, 인천세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기관방문 연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통제기법을 습득함

[국내 초청연수]



3) 라오스 마약관계관, 제21차 ADLOMICO 참석

- 2011. 5. 18. ~ 5. 20. 제주에서 개최된 ADLOMICO에 LCDC 부위원장, 국제 협력과장, 비엔티안 치료재활센터장 등 라오스 고위급 마약관계관 3명이 참석하여 각국의 마약류 범죄 실태 및 동향 공유, 국제 공조수사 강화 등 협력방안을 논의함

4) 대검찰청 · LCDC, 마약퇴치지원 사업 종료식 개최

- 2011. 11. 9. 라오스 비엔티안 LCDC 대회의실에서 대검찰청 마약과장, LCDC 위원장 등 마약관계관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약퇴치지원 사업 종료식을 공동 개최함
- 위 행사에서 대검찰청은 마약퇴치지원 사업성과 보고 및 수사 장비를 인도하고, LCDC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지원에 대한 기대를 표명함

[마약퇴치지원 사업 종료식]



4. 2012년 필리핀

가. 사업 배경

- 대검찰청은 필리핀 마약청(PDEA)에서 2009년 수행한 아세안 프로젝트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추가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함
- 2012년 법무부로부터 ODA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의 명칭을 ‘2012 SPO and PDEA(Strengthening Programs On Prevention of illicit Drugs through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and Activities)²⁷⁾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사업을 수행함

나. 사업 내용

1) 사업수행관 파견 및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

- 대검찰청은 2012. 3. 5. ~ 11. 2. PDEA에 검찰 마약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수행함
- 2012. 6. ~ 10. 필리핀 문틴루파(Muntinlupa), 타를라크(Tarlac), 세부(Cebu), 바기오(Baguio), 케손(Quezon) 지역에서 검찰 마약수사관, 駐 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영사, PDEA 지방청장 및 각 부서장, 학생 및 지역 주민 등 3,000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대검찰청과 PDEA가 공동으로 마약퇴치 캠페인을 개최함
- 위 행사를 통하여 학생, 지역 주민들에게 마약의 폐해를 적극 인식시켜 마약퇴치 홍보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함

27) SPO and PDEA는 양 기관인 SPO(Supreme Prosecutors' Office, 대검찰청)와 PDEA(Philippine Drug Enforcement Agency, 필리핀 마약청)의 약자와 본 사업인 마약퇴치지원 사업 명칭의 이중적 의미를 가짐

[마약퇴치 캠페인]



2) 선진 마약통제기법 전수를 위한 워크숍 개최

- 2012. 6. 20. 필리핀 마닐라 두싯타니 호텔(Dusit Thani Hotel)에서 검찰 마약수사관, 필리핀 마약청장, 마약관계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통제기법 전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함
- 위 행사에서 대검찰청은 PDEA 마약관계관들에게 우리나라의 마약통제시스템과 마약류사범 재활시스템, 검찰의 마약감식시스템과 마약수사정보시스템, APICC에 대해 소개함

[워크숍 개최]



3) 대검찰청 주관, 필리핀 마약관계관 및 마약감식관 국내 초청연수

- 2012. 7. 2. ~ 7. 6. 대검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에서 필리핀 마약관계관 4명을 대상으로 기관방문 연수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통제기법을 전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함
- 2012. 9. 3. ~ 10. 31. 대검찰청 마약감식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필리핀 마약감식관 2명을 대상으로 집중 연수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감식 기법을 전수함

[국내 초청연수]



4) 필리핀 마약관계관, APICC 창립총회 및 제22차 ADLOMICO 참석

- 2012. 9. 11. 부산에서 개최된 APICC 창립총회에 필리핀 마약청장 등 필리핀 고위급 마약관계관이 참석하여 각국 마약범죄 실태 및 동향, APICC 회원국 간 정보 공유 및 수사공조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함

[APICC 창립총회]



- 2012. 9. 12. ~ 9. 14. 부산에서 개최된 ADLOMICO에 필리핀 마약청장, 정보수사과장, 국제협력과장 등 고위급 마약관계관이 참석하여 각국의 마약류 동향, 마약원료물질 통제방안, 국제 공조수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함

[제22차 ADLOMICO]



5) 대검찰청 · PDEA, 사업 종료식 및 수사장비 인도식 개최

- 2012. 10. 26. 필리핀 마닐라 PDEA에서 필리핀 마약퇴치 국제협력사업 종료식과 더불어 수사장비 인도식을 공동 개최함
- 필리핀 마약통제역량 강화를 위해 PDEA에 컴퓨터, 수사차량, 비디오 감시장비, 휴대폰 분석장비, 컴퓨터 서버 등 수사장비를 3차에 걸쳐 지원함
- 위 행사에서 필리핀 측은 우리 대표단(대검찰청 강력부장 등)에 감사패를 수여하며, 2009년에 이어 2012년에도 필리핀 마약통제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준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명함

[사업 종료식 및 수사장비 인도식]



5. 2013년 방글라데시

가. 사업 배경

- 대검찰청은 2011. 12. 20. 방글라데시 다카(Dhaka)에서 개최된 한·방글라데시 간 무상원조 정책협의회에서 방글라데시 마약청(DNC²⁸⁾)으로부터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요청받음
- 2007년도부터 추진해 온 대검찰청의 국제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동남아시아에서 서남아시아 저개발국가들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함
- 대검찰청은 2013년도에 서남아시아 중 방글라데시를 우선 지원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법무부로부터 ODA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실시함

나. 사업 내용

1) 사업수행관 파견 및 사업명칭 등 확정

- 대검찰청은 2013. 4. 1. ~ 9. 28. DNC에 검찰 마약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수행함(사업명칭 : Assistance on Strengthening Drug Control in Bangladesh)

[사업 로고]



28) Department of Narcotics Control : 마약단속, 국제협력, 치료재활, 홍보·예방 등 마약통제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기관으로 6개 부서와 4개 지역사무소로 구성되었으며, 직접 수사를 담당함

[슬로건]

BE HEALTHY
BUILD A DRUG FREE COMMUNITY

2)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

- 2013. 5. ~ 9. 방글라데시 다카(Dhaka), 제소르(Jessore), 라지샤히(Rajshahi), 치타공(Chittagong) 지역에서 검찰 마약수사관, 駐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 방글라데시 내무부 장관 및 차관, 방글라데시 마약청장, 경찰청장, 비정부단체(NGO) 관계자, 학생 및 지역 주민 등 약 3,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검찰청과 DNC가 공동으로 마약퇴치 캠페인을 개최함
- 위 행사를 통하여 학생, 지역 주민들에게 마약의 폐해를 적극 인식시켜 마약퇴치 홍보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함

[마약퇴치 캠페인]



3) 선진 마약통제기법 전수를 위한 워크숍 개최

- 2013. 9. 10. ~ 9. 11. 방글라데시 다카 DNC에서 검찰 마약수사관, 방글라데시 마약청장, 마약관계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통제기법 전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함
- 위 행사에서 대검찰청은 DNC 직원들에게 우리나라의 마약통제시스템과 마약류사범 재활시스템, 검찰의 마약감식시스템과 마약수사정보시스템, APICC에 대해 소개하고, 인터넷 IP 추적기법과 휴대전화 추적기법을 전수함

[워크숍]



4) 대검찰청 주관, 방글라데시 마약감식관 및 마약관계관 국내 초청연수

- 2013. 7. 1. ~ 7. 22. 대검찰청 법화학실에서 DNC 소속 마약감식관 1명을 대상으로 집중 연수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감식기법을 전수함
- 2013. 7. 18. ~ 7. 22.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해양경찰청, 천안외국인교도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DNC 소속 마약관계관 5명을 대상으로 기관방문 연수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통제기법을 전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음

[국내 초청연수]



5) 방글라데시 마약관계관, 제23차 ADLOMICO 참석

- 2013. 6. 26. ~ 6. 28. 제주에서 개최된 ADLOMICO에 방글라데시 내무부 차관, DNC 부국장, 예방교육과장 등 고위급 마약관계관이 참석하여 각국의 마약류 범죄 실태 및 동향,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함

[제23차 ADLOMICO]



6) 수사장비 지원

- 대검찰청은 방글라데시 마약통제역량 강화를 위해 DNC에 수사차량,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등 수사장비를 3차에 걸쳐 지원함
- 방글라데시 정부는 대검찰청의 철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방글라데시 현지 실정에 맞는 지원을 해 준 점에 대해 우리 정부에 감사를 표명함

[수사장비 기증증서 서명 및 인도식]



6. 2014년 우즈베키스탄

가. 사업 배경

- 2007년부터 추진해 온 국제마약퇴치지원 사업을 동·서남아시아 저개발국가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함
- 대검찰청은 중앙아시아 중 우즈베키스탄을 2014년도 우선 지원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법무부로부터 ODA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실시함

나. 사업 내용

1) 사업수행관 파견 및 사업명칭 등 확정

- 대검찰청은 2014. 5. 20. ~ 10. 28.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에 검찰 마약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수행함(사업명칭 : Combating Illicit Drug Trafficking 2014 in Uzbekistan)

[사업 명칭]



[슬로건]

NOT EVEN ONCE²³⁾

29) '단 한번이라도 마약은 안 된다.'라는 의미임

2) 한 · 우즈벡 대검찰청, 타슈켄트(Tashkent, 수도) 마약퇴치 세미나 개최

- 2014. 9. 10.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검찰 마약수사관, 駐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제1차장검사, 내무부 마약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약퇴치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양국의 마약퇴치 노력에 대한 사례를 발표함

[마약퇴치 세미나]



3) 한·우즈벡 대검찰청, 히바(Xiva) 지역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

- 2014. 9. 11. ~ 9. 13. 우즈베키스탄 히바 지역에서 검찰 마약수사관,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국제협력국 검사 및 마약담당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마약퇴치 캠페인을 공동 개최하고, 해당 지역의 캠페인을 통해 마약에 대한 폐해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됨

[히바 지역 마약퇴치 캠페인]



4) 한 · 우즈벡 대검찰청, 테르메스(Termiz)³⁰⁾ 지역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

- 2014. 9. 28. ~ 9. 29. 우즈베키스탄 테르메스 제2고등학교와 예술학교에서 검찰 마약수사관, 駐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수사국장 및 부국장,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마약퇴치 캠페인을 공동 개최함
- 위 행사에서 테르메스 지역 학생 및 지역 주민들에게 마약의 폐해를 알리고, 양국 검찰의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함

[테르메스 지역 마약퇴치 캠페인]



30) 우즈베키스탄 수르한다리아州的의 주도로 우즈베크어로는 테르미즈(Termiz)임



- 위 기간 중, 검찰 마약수사관이 우즈베키스탄 수르한다리아州³¹⁾ 검찰청에서 현지 검사들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대검찰청 및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수르한다리아州 검사장은 ‘세계에서 마약문제가 가장 심각한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테르메스 지역을 우즈베키스탄은 물론 중앙아시아 국가와 러시아도 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본 캠페인의 취지가 잘 전달되었을 것이라며 감사를 표명함

[마약퇴치지원 사업 소개]



31) 수르한다리아州(우즈베크어 : Surxondaryo viloyati)는 우즈베키스탄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주로 카슈카다리아州,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해 있음

5) 우즈베키스탄 검사, 제24차 ADLOMICO 참석

- 2014. 10. 1. ~ 10. 3. 부산에서 개최된 ADLOMICO에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고위급 검사 3명이 참석하여 각국의 마약류 범죄 실태 및 동향 정보 교류,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함

[제24차 ADLOMICO]



6) 한·우즈벡 대검찰청, 마약퇴치지원 사업 종료식 등 개최

- 2014. 10. 16.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검찰청에서 대검찰청 마약과장, 마약수사관,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1차장검사, 검찰국장, 국제법무국장 등 주요 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마약퇴치지원 사업 종료식을 공동 개최함
- 대검찰청은 우즈베키스탄 측에 수사차량 2대 및 마약감식 장비를 지원하고,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은 성공적인 사업수행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면서 마약 감식관 등의 국내초청 연수기회 제공을 요청함

[마약퇴치지원 사업 종료식]



- 2014. 10. 17. 대검찰청 마약과장 등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주³²⁾ 검찰청을 방문하여 양국 간 마약단속 현황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법시스템을 소개함

[사마르칸트주 검찰청 방문]



32) 사마르칸트주(우즈베크어 : Samargand)는 우즈베키스탄의 행정 구역으로 중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고도임

- 2014. 10. 17.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국립대학에서 대검찰청 마약과장, 마약수사관, 사마르칸트 국립대학 총장, 교직원, 학생 80명 등이 참가한 가운데 대검찰청 마약과장이 ‘마약퇴치를 위한 양국 간 협력 증진’을 주제로 강연하고, 우리나라의 마약통제시스템 및 국제협력 경과 등에 대해 설명함

[마약퇴치 강연]



7) 대검찰청 주관, 우즈베키스탄 검사 및 마약감식관 국내 초청연수

- 2014. 11. 26. ~ 12. 5. 대검찰청 법화학실에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및 내무부 소속 감식센터 연구원 2명을 대상으로 집중 연수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 감식기법을 전수함
- 2014. 11. 26. ~ 12. 5.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해양경찰청, 천안외국인교도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우즈베키스탄 검사 6명을 대상으로 기관방문 연수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통제기법을 전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음

[국내 초청연수]



7. 2015년 타지키스탄

가. 사업 배경

-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아편 등 마약의 90% 이상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재배·생산되고 있으며, 그 중 60% 이상이 1,206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타지키스탄을 경유하여 러시아와 유럽 등으로 유통되고 있던 실정³³⁾임
- 국제사회는 타지키스탄을 세계 마약유입의 전초기지로 보고 타지키스탄 정부와 협력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 정부 역시 마약문제를 국가 안보문제로 인식하고 마약퇴치에 노력 중임
- 대검찰청은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³⁴⁾) 정책’에 부응하여 2014년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타지키스탄을 중앙아시아 국가 중 2차 지원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법무부로부터 ODA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 진행함

나. 사업 내용

1) 사업수행관 파견 및 사업명칭 등 확정

- 대검찰청은 2015. 5. 12. ~ 11. 6. 타지키스탄 마약청(DCA³⁵⁾)에 검찰 마약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수행함(사업명칭 : 2015 Cooperative Project for Drug Eradication in Tajikistan)

33)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인접, 마약의 운송 루트로 이용되어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국가 중 마약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나라임

34) 세계 최대 단일 대륙이자 거대 시장인 유라시아 지역내 국가와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들고, 유라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하게 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

35) Drug Control Agency :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마약류 밀수 등 마약사건 직접수사 및 국제기구, 외국 기관 간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마약통제기관임

[사업 명칭]



[슬로건]

STOP DRUG
НЕСТ БОД

2) 수사 및 마약감식 장비 지원

- 대검찰청은 타지키스탄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DCA 소속 직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철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자재를 지원함
- 차량, 무전기, 적외선 카메라 등 수사장비와 시료 농축기, 유리 모세관 등 마약감식 장비를 지원하였고, 타지키스탄 정부는 실질적인 마약통제역량 강화에 도움을 준 우리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명함

[수사장비 인도식]



3) 대검찰청 · DCA, 수그드(Sugd³⁶⁾) 지역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

- 2015. 8. 13. ~ 8. 14. 타지키스탄 수그드州 후잔트市 우콕차 캠프에서 검찰 마약 수사관, 타지키스탄 마약청장, 후잔트 지방 DCA 직원,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마약퇴치 캠페인을 공동 개최함
- 위 행사에서는 수그드 지역 5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퇴치 그림그리기 및 체력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 주도로 마약의 폐해를 주제로 한 연극을 공연함

[수그드 지역 마약퇴치 캠페인]



36) 타지키스탄의 행정 구역은 3개의 주와 1개의 직할구로 구성되어 있고, 수도 두산베(타지크어 : Душанбе)는 직할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그드州(타지크어 : Сугд)는 타지키스탄 북서부에 위치한 주로 주도는 후잔트(타지크어 : Хуҷанд)임

4) 대검찰청 · DCA, 하틀론(Khalton³⁷⁾) 지역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

- 2015. 9. 14. ~ 9. 16. 타지키스탄 하틀론주 쿠르곤텡파市 중앙공원에서 검찰 마약 수사관, 하틀론 지방 마약청장, 쿠르곤텡파市 부시장,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마약퇴치 캠페인을 공동 개최함
- 위 행사에서 3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주제로 한 그림그리기 대회, 연극공연 및 체력경진대회 등을 실시함

[하틀론 지역 마약퇴치 캠페인]



37) 하틀론주(타지크어 : Хатлон)는 타지키스탄 남서부에 위치한 주로 주도는 쿠르곤텡파(타지크어 : Кургантеппа)이며, 남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서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5) 대검찰청 · DCA, 두산베(Dushanbe, 수도) 마약퇴치 세미나 개최

- 2015. 8. 18. 타지키스탄 두산베에서 검찰 마약수사관, 駐 타지키스탄 대한민국 대사, DCA 제2부청장 등 마약관계자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양국의 마약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공동 개최함
- 위 행사에서 대검찰청은 우리나라의 마약퇴치지원 사업과 ADLOMICO · APICC에 대해 소개하고, DCA 제2부청장은 앞으로도 양국이 마약퇴치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표명함

[마약퇴치 세미나]



6) 타지키스탄 마약관계관, 제25차 ADLOMICO 참석

- 2015. 9. 22. ~ 9. 24. 제주에서 개최된 ADLOMICO에 타지키스탄 마약청장 등 고위급 마약관계관 6명이 참석하여 지역 내 마약류 범죄 실태 및 동향,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대검찰청과 DCA 간 「마약류 및 조직범죄 공조수사를 위한 MOU」를 체결함
- 위 대표단은 대검찰청과 제주해양경비안전서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마약 관련 사법 제도 및 유기적인 마약통제 시스템에 대해 습득함

[제25차 ADLOMICO]



[MOU 체결식]



7) 대검찰청 주관, 타지키스탄 마약관계관 등 국내 초청연수

- 타지키스탄의 실질적 마약통제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실정에 맞는 벤치마킹 기회부여를 위해 「대한민국의 선진 마약통제기법 전수를 위한 국내초청 연수」를 3회에 걸쳐 실시함
- 2015. 10. 11. ~ 10. 24. 마약관계관 3명, 2015. 11. 30. ~ 12. 10. 마약수사관 4명을 대상으로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경찰청,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서 기관방문 연수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마약정책 및 수사 기법을 습득하도록 함
- 2015. 11. 9. ~ 12. 5. 대검찰청 법화학실에서 마약감식관 3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마약류 성분감식 및 생체시료감식(소변·모발) 기법과 감식장비 운용 방법 등을 전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함

[국내 초청연수]





8) 대검찰청 · DCA, 마약퇴치지원 사업 종료식 개최

- 2015. 10. 29. 타지키스탄 두산베에서 검찰 마약수사관, DCA 제1부청장, 마약관계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마약퇴치지원 사업 종료식을 공동 개최함
- 대검찰청은 마약퇴치지원 사업수행 결과를 발표하고, DCA는 성공적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명함

[마약퇴치지원 사업 종료식]



8. 2016년 키르기스스탄

가. 사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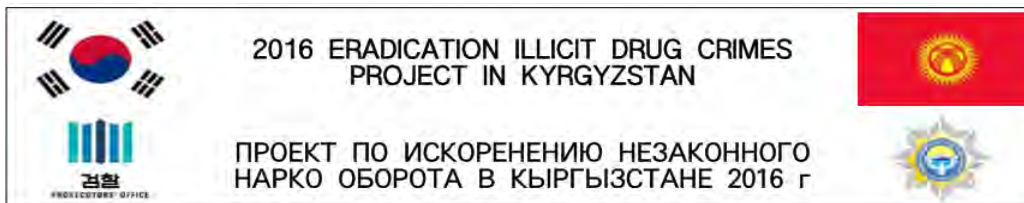
- 세계 최대 마약 생산국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아편 중 상당량이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경유하여 러시아, 유럽 등지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마약을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여 마약청(SSDC³⁸)을 설치하였으며, 미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 연대 강화를 통해 마약퇴치에 노력 중임
- 대검찰청은 2007년부터 추진해 온 국제마약퇴치지원 사업을 동·서남아시아 저개발국가들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14년 우즈베키스탄, 2015년 타지키스탄에 이어 키르기스스탄을 지원 대상국으로 선정, ODA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함

나. 사업 내용

1) 사업수행관 파견 및 사업명칭 등 확정

- 대검찰청은 2016. 5. 30. ~ 12. 10. SSDC에 검찰 마약수사관 1명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수행함(사업명 : 2016 Eradication Illicit Drug Crimes Project In Kyrgyzstan)

[사업 명칭]



38) State Service of Drug Control : 마약류 단속 등 직접 수사, 국제기관 및 외국 행정당국 간 협력 및 정보교류를 담당하는 키르기스스탄의 마약통제 전담 기구임

2) 수사장비 등 지원

- 키르기스스탄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SSDC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를 지원함
- 차량, 디지털 무전기세트, 방한복 등 수사장비와 노트북, 복합프린터기 등 사무장비를 지원, SSDC는 실질적인 마약통제역량 강화에 도움을 준 우리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명함

[수사장비 등 지원]



3) 대검찰청 주관, 키르기스스탄 마약관계관 등 국내 초청연수

- 2016. 7. 11. ~ 7. 23.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은평시립병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에서 SSDC 소속 마약 수사관 8명을 대상으로 기관방문 연수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통제기법을 전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함
- 2016. 7. 11. ~ 8. 4. 대검찰청 법화학실에서 SSDC 법의학팀 감식관 2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성분감식 및 생체시료감식(소변·모발) 기법과 감식장비 운용 방법 등 집중 연수를 실시하여 감식관들의 마약류 감식역량을 크게 향상시킴

[국내 초청연수]



4) 대검찰청 · SSDC 마약퇴치 공동세미나, 사업 종료식 및 장비 인도식 개최

- 2016. 11. 21.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³⁹⁾에서 대검찰청 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 검사, 마약수사관, SSDC 부청장 및 수사관, 유관기관 마약관계관 등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약퇴치 공동세미나 및 사업 종료식을 개최함
- 위 행사에서 대검찰청은 ‘대한민국의 온라인, SNS상에서의 마약류 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SSDC는 ‘키르기스스탄 마약범죄 및 단속 현황’에 대해 발표하는 등 상대국의 마약 현황을 이해하고, 불법마약류 통제기법을 공유함
- 대검찰청의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마약퇴치지원 사업수행 결과 발표에 이어 수사차량, 통신장비 및 노트북 등 수사장비 인도식을 개최하고, SSDC는 사업의 성공적인 종료를 축하하며 대검찰청에 감사를 표명함

39) 비슈케크(키르기스어 : Бишкек)는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로 인구는 약 100만 명임

[마약퇴치 세미나]



[장비 인도식]



[현지 언론 보도]

South Korea's Prosecutor General sends humanitarian aid to Kyrgyzstan's State Drug Control Agency

Bishkek (AKIpress) -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of South Korea has sent humanitarian aid worth over 8 million som (around US\$115.9 thousand) to the State Drug Control Agency of Kyrgyzstan.

The sides also held a round table discussion on November 21 on the South Korea's experience in the fight against drug trafficking. They exchanged views and discussed the issues of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ountering drug trafficking.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by the Korean Supreme Prosecutor's Office on combating drug trafficking in Kyrgyzstan was considered too.



제7절 베트남 마약통제역량 강화 사업

가. 사업 배경

- 베트남은 세계적인 헤로인 생산지인 골든 트라이앵글(미얀마, 태국, 라오스) 인접국으로 매년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였으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이 없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마약통제정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음
- 베트남公安부가 2008년 베트남 마약퇴치지원 사업(아세안 프로젝트)을 통해 신뢰 관계가 형성된 대검찰청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마약류 통계시스템 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자국의 마약통제역량 강화 사업을 적극 요청하여 대검찰청이 해당 사업을 시행함

나. 사업 내용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대검찰청의 마약수사관 및 전산전문가를 베트남에 파견하여 베트남公安부 산하 마약통제위원회(SODC) 본부와 전국 63개 성(省) SODC에 ‘통합마약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 국내 초청연수 등을 실시함

1) 통합마약류정보시스템(Integrated Drug Information System)

- 우리 검찰의 마약수사정보시스템을 모델로 베트남 현지 상황에 맞춰 최적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구축함
- 위 시스템은 전국에서 수집된 마약사범 인적사항, 조직계보, 범죄수법 등 마약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전국적인 공조수사가 가능하며, 향후 효율적인 마약통제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
 - ※ 대검찰청은 1990년에 마약수사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을 통하여 마약퇴치에 성공함으로써 유엔, ASEAN 등 국제사회로부터 마약 청정국으로 평가받고 있음

다. 추진 실적

1) 전문가 파견

- 대검찰청은 사업관리자(마약수사관)와 전산전문가를 베트남 현지에 파견하여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기술을 전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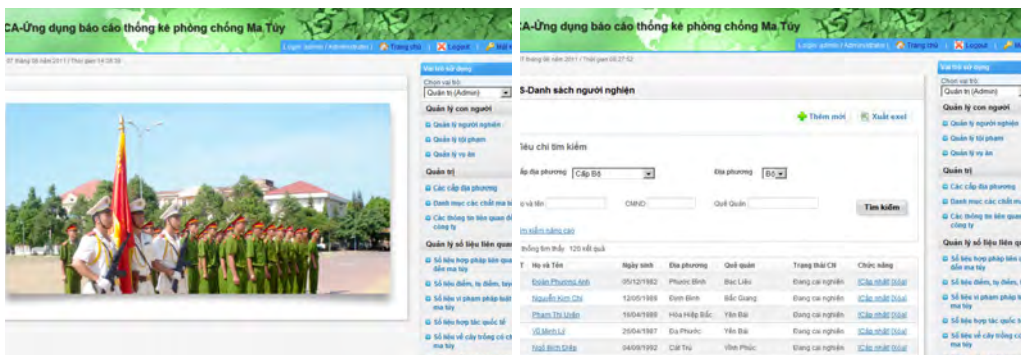
2)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장비 지원

- 대검찰청은 통합마약류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전산장비 및 사무용 기자재 지원과 마약통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원기관 홈페이지 개발을 통하여 마약류 통제 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 창구를 마련함

[전산장비 설치]



[마약통계프로그램 개발]



3) 시스템 관리 실무자 국내 초청연수

- 2010. 6. 27. ~ 7. 11. KOICA에서 SODC 소속 시스템 관리 실무자 10명을 대상으로 전산전문가 교육과정(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통합마약류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유지·보수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지원효과 극대화 등 마약통제기법을 전수함

[시스템 관리 실무자 국내 초청연수]



4) 현지 실무자 교육

- 2011. 7. 14. ~ 7. 27. 베트남 하노이 등 3개 지역에서 검찰 마약수사관과 전산 전문가 등이 SODC 본부, 전국 63개성(省) SODC, 5개 유관기관(대검찰청, 보건부, 상공부, 재정부, 노동보훈사회부) 소속 마약류 통계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마약류정보시스템 활용법 및 관련 기자재 유지·보수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현지 실무자 교육]



5) 최종평가 워크숍 및 기자재 인도식 개최

- 2011. 12. 19. ~ 12. 20. 베트남 하노이에서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마약과장, 법무부 법무연수원 대외협력단장, 駐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 KOICA 베트남 사무소장, 베트남公安部 경찰총국장, SODC 위원장, 마약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검찰청과 SODC가 공동으로 통합마약류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에 대한 평가와 수원기관의 의견 청취를 위한 최종평가 워크숍 및 기자재 인도식을 개최함

[워크숍 및 기자재 인도식]



라. 사업 성과 및 의의

1) 베트남 마약통제능력 향상

- 유엔 등 국제기구의 자금 및 장비 지원 위주의 전통적인 지원방법에서 탈피하여, 우리 검찰의 최첨단 마약수사정보시스템을 베트남 현지 상황에 맞게 구축함으로써 베트남의 마약통제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킴
- 베트남 정부는 ‘통합마약류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감사를 표명함

2) 국내 마약류 유입 차단 및 국제사회의 마약퇴치에 동참

- 베트남의 마약통제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정치적 · 외교적 중요성과 교역 · 투자 건설 대상으로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 중 하나인 베트남의 당면과제인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마약퇴치에 동참함은 물론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

제8절 방글라데시 마약통제역량 강화 사업

가. 사업 배경

- 방글라데시는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 및 황금의 초승달지대(Golden Crescent)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국제 마약 밀거래의 중간 경유지로 활용되어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하고,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부족 등으로 마약남용 문제가 심각함
-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마약류 문제의 특성 및 범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약남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마약류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적인 마약통제정책 수립이 불가능한 상황임
- 방글라데시 마약통제청(DNC)이 2013년 방글라데시 마약퇴치지원 사업(ODA)을 통해 신뢰관계가 형성된 대검찰청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마약통제역량 강화 사업을 적극 요청하여 대검찰청이 해당 사업을 실시함

나. 사업 내용

- 2016. 12. ~ 2019. 6.(30개월간) 방글라데시에 마약통제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IT기반의 마약수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신 사양의 장비 지원을 통하여 열악한 마약단속 환경을 개선하며, 마약관계관 등 국내 초청연수 실시, 현지 워크숍 및 캠페인 개최, 마약퇴치 홍보 관련 공익광고 제작·배포 등을 통해 마약통제역량 강화 및 마약 폐해 인식을 제고할 예정

다. 추진 경과

- 2016. 12. 사업관리자로 선정된 검찰 마약수사관 1명을 현지에 파견, 사업 기간 동안 전체적인 사업관리와 DNC 및 KOICA 간 상시 업무협의 채널을 유지하여 성공적인 사업 수행의 기틀을 마련

제9절 2016년도 마약류 관련 국제회의 참석

1. 제21차 아·태지역 약물단속회의(ADEC⁴⁰⁾)

- 일본 경찰청(약물총기대책과)이 주관하는 회의로, 2016. 2. 16. ~ 2. 18. 일본 동경에서 29개국, 3개 국제기구의 마약관계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범죄 조직의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및 신종 향정물질(NPS) 남용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정보를 교환함
- 검찰 참석자는 주최 측(약물총기대책과 대외과장 등)과 양자회담에서, 인터넷을 통한 마약밀매 대처 방안에 논의하고, 상호 교류를 통한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가 국제공조의 초석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

2. 제59차 마약위원회(CND) 회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주관하는 회의로, 2016. 3. 14. ~ 3. 22.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약 130개국, 20여개 국제기구 및 60여개 비정부단체(NGO) 관계자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UNODC의 마약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지침 및 마약통제에 대한 국제조약 이행 사항을 점검함
- 우리 대표단(대검찰청 강력부장 등)은 마약 수요 감축 및 공급 통제 강화, 마약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중독자들의 재활과 치료 지원 등 우리나라의 마약통제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마약문제에 대해 국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하면서 국제사회의 마약퇴치에 적극 동참 및 기여 의사를 표명함

40) Asia-Pacific Operational Drug Enforcement Conference

3. 제33차 국제마약회의(IDECA⁴¹⁾)

- 미국 마약청(DEA)이 주관하는 회의로, 2016. 4. 26. ~ 4. 28. 페루 리마에서 120여 개국 마약관계관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마약류를 통제하기 위한 마약수사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 도모 방안을 논의하고, 아울러 우리 대표단(인천지검 강력부장 등)은 중국 대표단과는 양국 간 정보 교환 및 공조수사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고, 말레이시아 대표단과는 APICC 가입 추진 사항을 협의함
- 그 외에도 우리 대표단은 각국 대표단과 접촉하여 국제 공조관계를 공고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2016. 3. 1. ~ 3. 2.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지역회의에서 우리 측이 체포 요청한 마약사범 4명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도망자 단계로 이동 분류시키고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함

4. 제40차 아·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⁴²⁾)

- UNODC가 주관하는 회의로, 2016. 10. 24. ~ 10. 27.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아·태지역 마약관계관 15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Darknet’⁴³⁾을 이용한 ATS의 남용 및 NPS의 확산, 마약류 수요 감축 방안, 자금세탁 방지 및 국제 공조에 대해서 논의함
- 특히, 여성이 마약 밀조 및 밀매 등 중범죄보다 마약 남용 또는 지시에 의한 마약운반 등 경범죄에 연루되는 경향이므로 처벌보다 치료·재활의 기회 부여 등 여성 위주의 차별화된 정책에 대해 각 대표단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
- 우리 대표단(대검찰청 마약과장 등)은 ATS 및 NPS 확산과 관련하여 정부 주도의 마약퇴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2000년대 초반 마약밀조 조직을 꺾었던 성과를 소개하고, ADLOMICO 개최 및 APICC 운영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함

41) International Drug Enforcement Conference

42) The Meeting of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43) Darknet은 서로 신뢰하는 사용자간 정보를 공유하는 P2P 네트워크

제10절 국제 공조수사 사례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후, 첫 범죄인 인수(2003. 5. 서울중앙지검)

사건개요

- 피의자는 2002. 1.경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9.3kg을 밀수입

공조사항

- 2002. 6.경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에 기해 피의자 범죄인 인도청구
- 2003. 3.경 중국 국가안전부가 여권위조 등의 혐의로 피의자 체포, 수사 후 우리 정보기관을 통해 서울지검에 추방형식의 인도 제의
- 2003. 4.경 중국公安部 관계자에게 정식인도 이행 촉구
- 2003. 5.경 중국公安部의 범죄인 인도 수락의사 확인
- 2003. 5.경 중국 심양시 심양국제공항에서 서울지검 마약수사관 2명이 신병 인수
- 중국으로 도피한 마약사범들을 범죄인 인도청구를 통하여 신병을 인수받아 구속 함으로써 마약사범들에게 도피처는 더 이상 없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줌

미국 마약청(DEA) 등 범죄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2003. 6. 서울중앙지검)

사건개요

- 우리나라 국적 대학생 등 3명 및 미군 9명은 2003. 6.경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호텔의 레이크파티 현장에서 MDMA 밀매·투약

공조사항

- 서울지검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혐의자들을 확인한 후, 2003. 6.경 미국 마약청(DEA), 미육군 범죄수사사령부(CID), 미공군 방첩수사대(OSI) 등과 공조하여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
- 우리 국민 3명은 국내에서 신병처리, 미군 9명은 행정협정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미군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하고, DEA, CID, OSI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

인천국제공항 경유, 아편 밀수사범 공조수사(2003. 12. 인천지검)

사건개요

- 미국 국적 마약 운반책 등 5명은 2003. 12.경 태국으로부터 아편 9.88kg을 수화물 가방에 은닉한 후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밀수입

공조사항

- 2003. 12.경 국내 항공사로부터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가방에 이상한 물건이 있다는 신고 접수
- 인천지검은 수화물 가방에서 아편 9.88kg을 발견하고, 최종 도착지가 미국 애틀란타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DEA에 즉시 상황전파 등 공조수사 진행
- DEA는 애틀란타에서 운반책 3명과 인수책 2명 등 5명을 검거하고, 아편 20kg을 압수함

한·중·괌 연계 필로폰 밀수사건(2006. 8. 서울중앙지검)

사건개요

-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06. 8.경 중국 청도에서 인천항으로 필로폰 약 800g을 밀수입한 후 같은 달 그 정을 모르는 운반자 2명을 이용하여 위 필로폰 중 약 530g을 인천국제공항에서 괌으로 밀수출 (※ 피의자1은 필로폰 밀수책, 피의자2는 호송책, 피의자3은 밀수 총책)

공조사항

- 2006. 8.경 서울중앙지검은 우리나라를 경유, 중국산 필로폰을 괌으로 밀수출하려 한다는 제보 입수
- 관세청 등 국내 유관기관 및 DEA와 공조하여 국내 밀수사범 뿐만 아니라 괌 현지 마약 밀매사범까지 검거하는 계획 수립
- 2006. 8.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운반자들의 협조로 피의자1로부터 건네받은 가방에서 필로폰 약 530g을 발견하여 압수
- 같은 날 검찰 마약수사관, 세관원 등 3명은 공범 등 검거를 위하여 운반자들과 피의자2와 같은 항공기에 탑승
- 다음날 국외팀은 괌 현지에서 DEA와 공조수사를 통하여 호텔에서 운반자들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으려던 피의자2 검거, 국내팀은 대전 등에 은신해 있던 나머지 피의자 2명 검거

사건개요

- 나이지리아 국적 피의자는 2002. 5.경 ~ 11.경 우리나라 국적 여성 10명 등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코카인 약 33kg과 대마 약 40kg을 페루, 태국, 가나에서 우리나라, 네덜란드, 일본, 브라질, 영국으로 밀수입 등

공조사항

- 2002. 12.경 서울중앙지검은 인터폴에 적색수배 의뢰
- 2003. 1.경 피의자의 조직원인 공범 3명 구속기소
- 2003. 2.경 프랑스 리옹의 인터폴본부 사무총국에서 수배서 발행 및 배포
- 2003. 9.경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검찰 주도로 경찰청, 외교통상부 등과 유관기관 회의
- 2003. 10.경 주한 독일대사관에 피의자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경찰청을 통하여 독일 인터폴에 검거 요청
- 2003. 10.경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에서 피의자 검거
- 2004. 2.경 인도재판을 심리한 독일 헤센주 지방정부는 우리나라와 함께 인도 요청을 한 덴마크로 인도 결정하여 신병을 덴마크로 인계
- 2004. 5.경 덴마크 질란트시 아루후스구치소에서 재판 대기 도중 탈옥, 중국으로 잠입
- 2007. 2.경 중국 공안당국은 선양시에서 피의자 체포
- 2007. 7.경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를 통해 중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청구

- 2007. 9.경 중국 선양시 고급인민법원은 대한민국으로 ‘인도조건 부합’ 판결
- 2008. 4.경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결 비준
- 2008. 9.경 법무부 및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5명이 중국 요녕성 선양시 타오시엔 국제 공항에서 신병인수
- 2008. 9.경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피의자 구속기소
- 2009.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무기징역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함

헤로인 원료물질 무수초산 10.64톤 압수(2009. 8. 서울중앙지검)

- 피의자는 파키스탄인 2명과 공모하여 2009. 2.경 인천항에서 섬유로 위장한 무수초산 5톤을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 밀수출하고, 2009. 8.경 인천항에서 섬유로 위장한 무수초산 10.64톤을 중국 외항선에 선적한 후 이란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공조사항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서울세관, DEA 한국지부, 파키스탄 마약 수사청과 긴밀한 협조와 정보 공유를 통하여 무수초산을 적발하여 밀수출을 차단함

필로폰 1kg 밀수 시도한 동남아시아 마약밀수조직 적발(2010. 11. 인천지검)

사건개요

- 피의자 4명은 2010. 11.경 대만으로부터 영양갱 및 비누로 위장한 필로폰 1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말레이시아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 피의자들은 싱가포르 국적으로 홍콩, 말레이시아 등에 거점을 둔 동남아시아 마약밀수 조직원)

공조사항

- 2010. 11.경 DEA로부터 싱가포르인 1명이 마약을 소지한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출국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첩보 입수
- 인천지검은 세관과 협업하여 항공기 탑승객 명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신속한 공조수사 진행
- 2010. 11.경 필로폰 1kg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휴대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려던 필로폰 운반총책과 운반책 등 2명 검거, 부산에 있는 호텔에 투숙중인 다른 운반책 1명 검거, 피의자 3명 전원 구속
- DEA 및 인터폴과 공조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된 필로폰 공급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 수배함

멕시코발 필로폰 밀수사범 구속(2011. 5. 서울중앙지검)

사건개요

- 피의자는 2009. 12.경 ~ 2010. 5.경 멕시코에서 국제특송화물 및 국제통상우편물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필로폰 총 287.39g을 밀수입

공조사항

- 2010. 1.경 대검찰청 마약과는 DEA로부터 공조수사 요청접수(인터폴 적색수배)
- 피의자는 2010. 6.경 멕시코에서 검거되었으나 이민국 수용소의 문을 부수고 탈주
- 2011. 4.경 피의자가 멕시코 경찰에 출석한 후 멕시코 이민국에 수용되자, 멕시코 인터폴에 신병인수 요청

- 2011. 5.경 신병인수단(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관 2명, 법무부 국제형사과 직원 1명)이 일본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경유지인 일본 공항 우리 국적 항공기내에서 체포영장 집행
- DEA, 인터폴, 멕시코 이민국 등 각국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하에 마약밀수를 일삼는 국제마약사범을 검거한 후 국내로 송환하여 구속함

한국판 국제 마약왕 범죄인 인수 (2011. 5. 서울중앙지검)

사건개요

- 피의자는 운반책 모집자 2명과 공모하여, 2004. 10.경 운반책 2명에게 코카인 37kg을 남미 프랑스령 가이아나에서 프랑스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2005. 3.경 운반책 1명에게 코카인 11.5kg을 페루에서 스페인으로 운반하도록 지시 (※ 피의자, 운반책 모집자 및 운반책 전원 우리나라 국적)

공조사항

- 2005. 8.경 서울중앙지검은 인터폴에 피의자 적색수배 조치
- 2009. 7.경 브라질 경찰이 피의자 검거, 2009. 9.경 브라질에 범죄인 인도청구
- 2011. 2.경 브라질 연방대법원, 범죄인 인도 결정
- 2011. 5.경 브라질 상파울루시국제공항 우리 국적 항공기내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인수받아 국내로 송환하여 구속함

국제 공조수사를 통한 필로폰 544.9g 밀수책 검거(2012. 2. 인천지검)

사건개요

- 피의자는 2011. 11.경 중국에서 필로폰 544.9g이 은닉된 전기프라이팬을 운반책에게 건네주고, 운반책은 다음날 중국 청도 유순공항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우리나라로 출국하려다 중국세관에 적발되어 필로폰 밀수입 미수에 그침 (※ 운반책은 우리나라 국적으로 중국에서 구속)

공조사항

- 2011. 11.경 중국세관이 인천본부(항만)세관에 운반책의 구속사실을 통보하고, 인천본부세관은 이를 인천지검에 통보하여 국제 공조수사 착수
- 2011. 12.경 인천지검은 국제공조를 통해 중국 측의 조사자료(운반책의 심문기록, 현장 CCTV 사진 및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등 확보
- 2012. 1.경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 2012. 2.경 세관과 공조, 귀국 후 내연녀 집에 숨어있던 피의자를 검거하여 구속함

운반책 이용,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3.5kg 밀수입한 총책 검거(2013. 6. 인천지검)

사건개요

- 피의자는 공범 1명과 공모하여, 2011. 12.경 운반책 3명을 이용,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필로폰 약 2.1kg을 밀수입하고, 다른 공범 1명과 공모하여, 2012. 3.경 운반책 2명을 이용,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필로폰 약 1.4kg을 밀수입

공조사항

- 2011. 12.경 인천지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운반책 3명 체포
- 2012. 1.경 피의자 체포영장발부 및 인터폴 적색수배 · 여권무효화 조치

- 2012. 3.경 인천지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운반책 1명 체포
- 2013. 4.경 대검 마약과는 APICC를 통해 PDEA 및 이민청에 피의자 검거 협조 요청
- 2013. 5.경 필리핀 현지에서 피의자 체포
- 2013. 6.경 필리핀 마닐라국제공항 우리 국적 항공기내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인수받아 국내로 송환하여 구속함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중국 도피 마약 밀수사범 검거, 구속(2014. 3. 평택지청)

사건개요

- 피의자는 2010. 11.경 ~ 2011. 3.경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필로폰 300g 밀수입하고, 필로폰 20g 판매 및 필로폰 30g 매매 알선

공조사항

- 2011. 6.경 피의자 체포영장 발부 및 지명수배
- 2014. 1.경 중국公安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피의자 신병 확보
- 2014. 3.경 중국公安부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수받아 국내로 송환하여 구속함

베트남으로 도피 중인 마약사범 강제송환(2014. 12. 인천지검)

사건개요

- 피의자는 2011. 10.경 ~ 2012. 1.경 총 18회에 걸쳐 베트남에서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12g, 엑스터시 20정, 케타민 50정 밀수입

공조사항

- 2012. 8.경 피의자 체포영장 발부 및 지명수배
- 2012. 12.경 피의자 인터폴 적색수배
- 2013. 1.경 외교부는 피의자 여권발급 등 제한 및 여권 효력 상실 조치
- 2014. 3.경 APICC를 통해 베트남公安부와 공조 수사 진행
- 2014. 12.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피의자 검거
- 2014. 12.경 강제추방 형식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인수받아 국내로 송환하여 구속함

멕시코로부터 필로폰 15kg 밀수한 마약사범 강제송환(2015. 5. 전주지검)

사건개요

- 피의자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2014. 3.경 멕시코 마약 밀매조직에게 필로폰 약 15kg을 우리나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달 국제특송화물을 이용, 위 필로폰을 우리나라로 밀수입

공조사항

- 2014. 4.경 피의자 체포영장 발부
- 2014. 5.경 인터폴 적색수배
- 2014. 10.경 한·중 마약대책회의에서 피의자 체포 및 송환 요청
- 2015. 2.경 일본 경찰청의 소재 발견 통보(피의자는 2. 5. 일본으로 입국하여 2. 10. 홍콩으로 출국할 예정으로 관련 정보 제공)

- 2015. 2.경 홍콩으로 긴급인도구속⁴⁴⁾ 청구, 피의자 체포
- 2015. 2.경 홍콩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
- 2015. 5.경 홍콩측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수받아 국내로 송환하여 구속함

인터넷으로 마약류 판매한 마약사범 강제송환(2015. 5. 서울중앙지검)

사건개요

- 피의자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2014. 1.경 ~ 3.경 인터넷 사이트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구매자 194명으로부터 마약류 매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5,800만 원 상당을 송금받고 필로폰 등 마약류 판매

공조사항

- 2014. 2.경 피의자 운영의 마약판매 사이트 확인
- 2014. 7.경 피의자 체포영장 발부
- 2014. 10.경 한·중 마약대책회의에서 중국公安부 금독국에 체포 요청
- 2014. 12.경 중국 심양에서 피의자 체포
- 2014. 12.경 피의자 긴급인도구속 청구 및 범죄인인도 청구
- 2015. 2.경 중국내 범죄사실을 이유로 송환 잠정 보류
- 2015. 11.경 범죄인인도 청구 취소 및 중국公安부의 피의자 강제송환 결정
- 2015. 12.경 피의자의 신병을 인수받아 국내로 송환하여 구속함

44) '긴급인도구속'이란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하게 범죄인을 체포·구금(拘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범죄인 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범죄인을 체포·구금하는 것을 말함(범죄인 인도법 제2조 제5호, 법률 제11690호)

캄보디아 거주 필로폰 약 1.3kg 밀수범 2명 송환·구속(2016. 2. 대전지검)

사건개요

- 피의자 등 2명은 캄보디아에 거주하면서, 2015. 8.경 우리나라로 필로폰 약 1.3kg을 밀수입

공조사항

- 2015. 9.경 체포영장 발부
- 2016. 1.경 인터폴 적색수배
- 2016. 1.경 대검찰청 마약과는 APICC를 통해 캄보디아 마약청(NACD)에 피의자 등 2명에 대해 검거 요청
- 2016. 1.경 캄보디아 포이펏에서 검거
- 2016. 2.경 국내로 송환하여 구속함

중국 및 캄보디아발 필로폰 약 6.8kg 밀수입한 총책 등 3명 검거(2016. 5. 인천, 부산지검)

사건개요

- 피의자 등 6명은 중국 및 캄보디아에 거주하면서 2014. 10.경~2016. 1.경 우리 국민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중국 및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로 필로폰 약 6.8kg을 밀수입

공조사항

- 2014. 11.경 필로폰 밀수총책 E 체포영장 발부 및 인터폴 적색수배(인천지검)
- 2015. 9.경 필로폰 밀수조직원 A 체포영장 발부(부산지검)

- 2015. 12.경 필로폰 밀수조직원 A 인터폴 적색수배(부산지검)
- 2015. 12.경 대검 마약과는 APICC를 통해 NACD에 피의자 등 2명에 대해 검거 요청
- 2015. 12.경 캄보디아 포이펏에서 필로폰 밀수조직원 A 검거
- 2015. 12.경 필로폰 밀수조직원 B, C, D 체포영장 발부(인천지검)
- 2016. 1.경 필로폰 밀수조직원 B, C, D 인터폴 적색수배(인천지검)
- 2016. 1.경 대검 마약과는 APICC를 통해 NACD에 밀수조직원 3명에 대해 추가 검거 요청 및 A 국내 송환 추진
- 2016. 1.경 필로폰 밀수조직원 A 국내 송환(부산지검)
- 2016. 1.경 필로폰 밀수조직원 F 체포영장 발부(부산지검)
- 2016. 2.경 필로폰 밀수조직원 F 인터폴 적색수배(부산지검)
- 2016. 2.경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밀수총책 E 검거 및 국내 송환(인천지검)
- 2016. 5.경 대검 마약과는 APICC를 통해 NACD에 미검거 밀수조직원 4명에 대해 검거 요청
- 2016. 5.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밀수조직원 D 검거 및 국내 송환(인천지검)
- NACD에 미검거 밀수조직원 3명에 대해서 조속한 검거를 재차 요청함

